

칭하이 무상사

# 추천년의 사랑





칭하이 무상사

# 구신년의 사랑

SM출판사





칭하이 무상사

2008년 9월 6일  
프랑스 성 마틴 센터

## 헌사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께

지비로우신 우주의 스승이시여, 드넓은 강 같은 당신의 시집에 담긴 정열한 시들을 정리하고 번역하여 세상에 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해 고개 숙여 가장 신실하고 가장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편 한편의 시들은 모든 존재의 의식 속에 유유히 스며드는 감로천(甘露泉)처럼 시원함과 상쾌함을 싣고 흘러 영원한 사랑의 행로를 걷는 영혼들의 자비심을 일깨웁니다.

인류가, 당신의 경이로운 시가 지닌 영원한 사랑에 은혜 입어 영원토록 환히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무한한 자비와 축복 속에,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루속히 깨달음의 피안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스승님, 당신의 시에 감사드립니다.  
낙원의 피안에 자리한 「천년의 사랑」  
금과옥조 같은 한 마디 한 마디에 귀 기울이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 와  
형형색색의 빛이 되고  
시의 강은 천 년간 빛나며  
나뭇배는 나그네들을 근원으로 견네줍니다.

당신의 무한한 축복 속에  
제자들 올림

## 감사의 말

신의 모든 축복에 감사하며, 각별한 헌신과 성실함으로 이 시집을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모두에게 선 사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 정하이 무상사

번역·편집

Ju-No Son, Keal-Ye Cho, Mi-Ra Nam, Hee-Youn Hong, Jin-Sub Byun, Hee-Gyoung Na,  
정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경서 팀

포지 디자인

Bie Lee

그래픽 디자인 및 레이아웃

Diệp Quốc Bình

내지 사진

전세계 촬영 팀, 수프림 마스크 텔레비전

사진 편집

Wang Bor Tang, Yu Hui-Chun

예술가 협의

포브사 타이베이 센터, 포브사 징와 센터, 정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또한 많은 재능을 공헌해 준 모든 예술가들과 단체에도 감사합니다.

포제 디자인

So-Young An

사진 저작권자

Trần Đình Thục, Joshua Tan, Dreamtime Inc., DepositPhotos Inc., SXC,  
Courtesy of NASA, ESA, S. Beckwith (STScI) & the HUDF Team

추천사와 예술가 소감

구민 관장, 시인 딸 티엔 투, 좌곡가 프레드 칼린, 좌곡가 빌 콘터, 좌곡가 팜 주이, 좌곡가 응우옌 반 락, 좌곡가 팜 마이 피엡, 좌곡가 부 득 사오 비엔, 좌곡가 투 민 켜, 좌곡가 켄 팡 땡, 좌곡가 또 타인 똥, 좌곡가 켄 쉐인, 장행민 교수, 장이한 교수, 시인 우성, 작가 린우빈, 민수원일 편집장, 공연 예술가 탐대이원, 작가 장위안.



## 칭하이 무상사 약력 사랑의 길

칭하이 무상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적 스승이자 예술가, 인도주의 활동가로서 모든 문화적 경계를 초월해 사랑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부 아올라(에트남)에서 태어난 그녀는 유럽에서 공부하고 그곳 적십자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곧 전세계 곳곳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길망이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독일인 의사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힘든 결정이었지만 결국 남편의 촉박 속에 이 이상을 실현하고자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인도 히말리아에서 참스승을 만나 내면의 빛과 소리를 관하는 신성한 명상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를 관음법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얼마간 수행에 정진한 후 칭하이 무상사는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1980년대에 설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실한 요청에 따라 칭하이 스승은 관음법문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내면을 성찰해 자기 자신의 위대한 신성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유엔을 비롯해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강연 초청이 이어졌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심은 갖가지 상황에 처한 불우한 이들을 세심히 돌보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스승님의 자비로운 도움은 모든 제약을 초월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과 노인, 재소자, 육체 및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 노숙자, 퇴역 군인에게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야기된 현재의 긴급한

상황 속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인도주의 활동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는 한편, 협회 회원들에게도 자 연재해를 겪는 전세계의 무수히 많은 이재민들을 도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녀는 지구의 소중한 동물들과 환경에도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는 전세계 수 백만의 가슴을 울렸으며, 사람들에게 그 이타적인 모범을 따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림과 등(燈), 의상 및 보석 디자인과 같은 창작 활동으로 마련된 기금을 통해 곤경에 처한 신의 자녀를 위로 하는 시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칭하이 무상사는 세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고귀한 야생』을 저술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나와 있는 이들 책에는, 릴레파 시와 영적 통찰을 통해 알게 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소중한 동물 이웃들의 생각이 담겨 있으며, 그들의 고결한 정신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미덕을 증진시키는 행동과 영향력을 발휘한 이들을 표창하고자 칭하이 무상사는 2006년 3월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제정했습니다. 그 후로 '빛나는 세계 자비상', '빛나는 세계 영웅상', '빛나는 세계 정직상', '빛나는 세계 보호상', '빛나는 세계 지성상', '빛나는 세계 발명상' 등 일련의 다른 권 위 있는 상들도 제정되었습니다. 모범적인 활동을 통해 지구의 조화와 아름다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과 국가,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은 수상자 중 일부입니다. 슬로베니아 제2대 대통령 야네즈 드르노브셰크 박사(Dr. Janez Drnovšek), 미국 제45대 부통령이자 유엔 정부 간기후변화위원회(IPCC)와 함께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앨 고어(Al Gore), 유엔 IPCC 의장이자 인도 에너지자원연구소(ICRE) 사무총장으로 '2010 유엔 해비타트 도시 강연상'을 수상한 라젠드라 K. 파차우리 박사(Dr. Rajendra K. Pachauri), 나사 우주 연구소 소장이며 '2009년 칼-구스타프 로스 뷔 연구 메달'을 수상한 제임스 E. 헨슨 박사(Dr. James E. Hansen), 영국의 저명한 영장류 학자인 제



인 구달 박사(Dr. Jane Goodall) 등.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른 생명을 구조한 귀한 동물 친구들에게도 '빛나는 세계 영웅상', '빛나는 세계 지성상' 등을 시상함으로써 사랑의 행동을 통해 보여 준 놀라운 용기와 지성, 배려심을 표창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이 세상에 정신적·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인정도 바라지 않지만 그 사심 없는 지원을 높이 평가한 전세계 여러 정부와 민간 단체들로부터 많은 권위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시 평화상(2006년), 세계 평화상, 제27회 텔리상 1등 은상(2006년),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 표창장(2002년), 세계 영적 지도자상(1994년), 세계 인도주의 시민상(1994년) 등. 또한 미국의 여러 주 정부에서는 2월 22일과 10월 25일을 '칭하이 무상사의 날'로 공식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를 돕는 그녀의 헌신적인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전세계 수백만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현 시기 기후변화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는 우리 사회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구자 가운데 한 분으로서, 지난 20여 년간 환경 보존에 관한 강연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대안적인 삶' 캠페인과 'SOS 지구 온난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많은 회의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최우선 해결책인, 자비로운 비건 채식 생활 방식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가 창안한 '채식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지구를 구하자'라는 구호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 선택이 기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 칭하이 무상사는, 인류가 좀더

자비롭고 지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러빙헛(Loving Hut)'이라는 비건 채식 식당 체인점을 발전시키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지점을 두고 있는 이 유명한 의식업체는 맛있고 값도 적당하면서 영양이 뛰어난 다양각색의 비건 채식 요리를 풍부하게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선도하며, 이를 통해 세계와 세계 시민들, 지구에 더불어 사는 모든 존재와 우리 미래 세대를 지구 온난화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줄 최고의 해결책을 장려합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사심 없이 헌신하는 분으로서, 인류가 사랑하는 지구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도록 부단히 돕고 계십니다.



#### 도움말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재된 영성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을 쓰면 그 나라와 국민의 영성이 고양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 차례

• 인사.....	iv
• 감사의 말 .....	v
• 칭하이 무상사 약력 사랑의 길 .....	vi
• 추천사.....	xii
• 서문.....	xiv
•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대한 유명 예술가들의 소감 .....	xvi

### 1부 젊은 날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

01. 나의 집*	2
02. 그리운 여름*	4
03. 어느 날*	8
04. 하루는*	12

### 2부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

05. 강아지의 마음*	18
06. 암탉의 말*	20
07. 아기 돼지의 말*	23
08. 그제 당신이라면!	27

### 3부 시공을 초월한 사랑

09. 천년의 사랑*	32
10. 한밤의 꿈*	40
11. 시간의 그늘*	42
12. 고대의 사랑*	44
13. 내 마음의 왕*	46
14. 세세상생의 내 사랑에게	50
15. 왕자님께	54
16. 왕자님께 드리는 축하 인사	60
17. 원던	62
18. 옛사랑	66
19. 향기로운 길	68
20. 당신과 왕국	72
21. 에도의 글	74

### 4부 특별한 이들에게

22. 황금 연꽃*	81
23. 사요나라*	83
24. 문득 호암 켜를 위해 쓴 글*	85
25. 투 호에게*	87
26. 레 우연 프엉을 위해*	89
27. 타이 향을 기리며*	91
28. 팜 주이에게*	91
29. 조용한 영웅	92



### 5부 신성한 사랑

30. 깨어나세요!*	99
31. 하지 마세요!*	104
32. 불상(佛像)에게 하는 말*	108
33.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	110
34.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	112
35. 서로 사랑해요!*	114
36. 이상적인 연인*	119
37. 당신이 사랑한다 말했다 때	122
38. 천국의 새	124
39. 태양을 위한 노래	126
40. 나의 달님	130
41. 소중한 별님들!	134
42. 나는	136
43. 신을 찬미할지라	138
44. 신은 그대를 너무나 사랑하시네!	140
45. 잘 자라, 아가야	146
46. 언제 다시 만나려나?*	152

• 공연된 시 목록.....	155
• 칭하이 무상사의 간행물 안내.....	156
• 주요 연락처.....	164

\*는 어울락어 원시



 추천사 

시는 예술적으로, 문학적 양식에 맞춰 영혼을 표현, 반영한 것이다. 우즈(無子)의 시는 마치 홍진(紅塵) 속에 피어난 맑은 연꽃과 같이, 폭풍우 치는 바다를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이, 그리고 먹구름 낀 하늘을 가로지르는 무지개와 같이 세인의 선입견을 훌쩍 뛰어넘는다.

우즈의 시 문체는 때로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부드럽고 온화하며, 때로는 수천 마리의 말이 달리는 듯 생동감이 넘치고 역동적이다. 그의 시는 우아하면서도 탈속적인 특성이 가득하다. 단순한 대화체의 언어로 표현된 이 시들은 종종 그 안에 담긴 심오한 의미나 순수한 서정미와 모순을 이루기도 한다.

시인은 신선한 시어 선택과 조화로운 운율로 낭만적이고 인상적인 시풍을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아름다운 천상의 세계를 창조해 냈다. 무엇보다도, 이들 시는 완전히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듯한데도 그 여운이 대단히 황홀하다.

이들 시는 독특한 예술성과 더불어 종종 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위대한 자비심을 전해 준다. 따라서 시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시에 드러난 사랑은 독자의 영혼을 고양시켜 궁극적인 진선미의 경지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나는 독자들에게 이 시집을 적극 추천하며, 독자들도 이 시들에 담긴 영적 메시지와 낭만적인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시집을 읽는 독자들은 우즈 시인의 마음에서 우러난 진선미를 감상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 구민(顧敏) 포모사(대만)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전(前) 유네스코 국제도서관협회연구소연맹  
(IFPLAI) 상임위원회 회원, 전(前) 아시아태평양  
국회사서협회(APLAP) 회장

주: '우즈(無子)'는 칭하이 무상사의 필명으로 '불사(不死), 영생(永生)'을 뜻한다.





## 서문

하나 된 마음과 영원한 진리의 빛을 가진 칭하이 무상사는 환상과도 같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침(浮沈)을 가슴으로 공감하기에 이 세상에서 고통 받는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느끼신다.

이토록 덧없는 세계의 삶은 때론 소리 없는 발자국과 같고, 때론 그리운 고향집을 찾아 피안으로 돌아가고자 열망하는, 풍랑 치는 바다에 놓인 배처럼 쓸쓸하다. 하지만 연인은 영원히 에덴에서 멀리 날아가 버린 새의 자취 같기만 하고, 남겨진 것은 가눌 수 없는 슬픈 동경뿐이다.

지난밤 꿈을 꾸었네  
편안한 이부자리와 베개를  
공기 속에 감도는 향기로운 백단향을.  
진심이었던 그 시절  
우리 아직 함께였고  
우리 사랑 아직 영원했었지.

(한밤의 꿈)

칭하이 무상사의 미려한 시 46편이 수록된 『천년의 사랑』은 사랑과 추억을 전해 주고, 이 안에는 인간의 삶과 더불어 사는 작고 연약한 다른 생명들의 운명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영혼의 마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고고한 이든, 세속적인 이든 변화무쌍한 이 삶에서는 그 누구도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불확실한 인생이라는 강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인간의 역경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 이에 따라 그의 시는 비통한 마음과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다.

눈물은 말라 버리고 할 말도 잊은 채  
고통 받는 존재들에 가슴 아파 눈물짓나니!

(깨어나세요!)

xiv

칭하이 무상사의 시는 단어와 감성, 영성과 일상생활이 조화롭게 잘 짜여 있다. 그의 시적 표현은 부드럽고 심오하며, 모든 영혼의 깊숙한 이면을 비추는 달빛처럼 유려하다. 때로는 외로운 나뭇배가 사랑에 대한 소망을 싣고 불행의 강을 가로질러 행복의 해안으로 나아가는 듯하며, 때로는 여름비처럼 순수해서 이 찰나의 세상에서 온갖 여정을 겪는 영혼에게 원기를 되찾아 준다. 시인은 인류가 하루속히 깨달아 진아(眞我)로 돌아가고, 자애롭고 고귀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며, 현실을 직시하여 앞으로 이 행성을 인간과 모든 생명이 평화와 조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지상천국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오, 형제여, 당장 깨어나세요.  
당당하게 바다와 강 위를 거닐고  
타오르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며 맹세하세요  
지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희생하겠노라고!  
(깨어나세요!)

시를 사랑하는 독자들이 『천년의 사랑』에 실린 시를 음미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깨달음의 경지를 체험하기를, 또한 집을 떠난 이의 가슴속에 자리한 '사랑하는 이와 다시 만나려는'\* 열망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한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시를 통해 끝없는 사랑과 희망의 원천을 세상에 선사해 주신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충만한 지복의 나라로, 우리 돌아가리라.  
천국의 바람결에 대양의 음성 어디서나 메아리치노라.  
(언제 다시 만나려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경서 팀

주: \*표시의 인용 문구와 여기 실린 시들은 본 시집에서 발췌한 것임.

xv



##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대한 유명 예술가들의 소감

팜 티엔 투(Phạm Thiên Thu)는 천부적 재능을 가진 어울락 시인이다. 예술가로 살아온 그는 '노란꽃 굴'과 '옛 호앙티' 등 수많은 불후의 명시를 자국의 문학 유산에 공헌했다. 그는 칭하이 무상사의 『천년의 사랑』을 읽고 큰 영감을 받아 사랑과 심오한 의미가 가득한 아래의 시를 써서 칭하이 무상사께 헌정했다.



선사(導師)이자 시인인  
칭하이 무상사께 삼가 바치는 시

오, '시간의 그늘'  
바닷가 모래밭에 새 발자국  
황금빛 달빛 아래 밤안개.

특 건드리니 난초 향기 그윽하네!

속세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셋별  
즐겁게 새로운 향기 찾아다니고  
지구, 오, 태양  
점이기도, 아니기도 하구나!

향기를 머금은 불방울  
형체 없는 명상, 달빛 정원이여!


팜 티엔 투  
2009년 10월 29일

시와 노래, 음악은 인류의 영성을 고양시키는 귀한 재능으로서 인류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끔 해준다. 영성 면에서 서로 공명하는 시인과 음악가는 때론 부드럽고 때론 느릿한 시의 운율 속에서 서로의 공통된 목소리를 발견하곤 한다. 편안하면서도 열정적이고, 낭만적이면서도 심오하며 똑 부러지는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재능이 뛰어난 음악가들은 아름다운 선율을 붙여 그녀의 시에 날개를 달아 비상하게 해주었다. 세계의 재능 있는 예술가들은 칭하이 무상사와 비범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의 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전해 왔다.

**프레드 칼린(Fred Karlin, 1936-2004):** 오스카상과 에미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수상한 미국 작곡가.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곡을 붙인 비범한 서사곡 '평화를 구하는 자'를 작곡하여 음악회에서 직접 공연한 바 있다. "많은 이유에서 이 곡을 쓰게 됐는데, 작업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스러웠습니다. 시인 칭하이 무상사는 우리가 내면과 연결되지 않은 탓에 살면서 맞닥뜨리는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자신과 연결된다면 부(富)든 명성(名聲)이든 더 이상 그런 행복을 찾지 않을 것임을 거꾸로 보여 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시 중 한 편에서도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 콘티(Bill Conti):** 미국 오스카상과 에미상 수상자.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편곡한, 아주 특별한 곡을 지휘했다. "이 특별한 곡은 칭하이 무상사님이 쓴 시에 제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 음악과 시 모두를 나타내는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연주될 때 청중들의 마음에 뭔가 불러일으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 곡의 비밀이지요……. 음악이 연주될 때 칭하이 무상사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만일 칭하이 무상사님을 뵈거나 함께할 수 있다면 제가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그분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멋진 것을 주고 계시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곡가 팜 주이(Phạm Duy), 어울락(베트남): “칭하이 무상사의 시는 지상에서의 사람과 순수한 영적 삶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시는 선입견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의식의 여정과 인생의 강을 돌아보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은 열린 마음뿐이라는 거지요. 그 중화역은 자연스런 각성이며 어떤 미련도 없는 순수한 귀향(歸鄉)입니다. 이 시들 속에서 우리는 ‘살의 소리에 한 번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작곡가 응우옌 반 락(Nguyễn Văn Ty), 어울락(베트남):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음악으로 만들 기회를 가짐으로써 제 인생의 최고봉까지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운이 좋다고 느낍니다. 언젠가는 그분의 시 덕분에 제 음악이 늘 제가 꿈꾸던 경지로 비상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칭하이 무상사께, 시인의 정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이미 진리를 얻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에 인간적이라는 인상을 남기시는데, 저와 많은 이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곡가 팜 맵인 고잉(Phạm Mạnh Cường), 어울락(베트남): “칭하이 무상사님의 시집을 읽고 감동하게 되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의 시는 대단히 조화롭고 아름다우며 사랑과 영성이 서로 융화되었습니다. 이 시들은 정말 훌륭하고 자연스러우며 신실하고 고요서 독자를 쉽게 감동시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는 제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저는 외람되게도 그분의 작품을 바탕으로 여러 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곡들을 제가 진실로 존경하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으신 칭하이 무상사께 삼가 바치고 싶습니다.”

작곡가 부 득 사오 비엔(Vũ Đức Sao Biển), 어울락(베트남):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나타난 문체는 아주 다면

적입니다. 이런 문체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를 많이 읽고 연구하고 흡수하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는 인간의 운명과 숙명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로움을 전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이 무한히 펼쳐진 세계에 놓인 티끌 같은 존재라는 극도의 쓸쓸함입니다…….”

작곡가 추 민 끼(Chu Minh Kỳ), 어울락(베트남): “흔히들 시 속에 음악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엔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읽었을 때 낭만이 넘치던 옛날(1975년 이전)의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의 정경, 사람들, 생활 속의 다양한 소리, 그런 것들이지요. 이런 건 당시 음악에도 반영돼 있을 거라서,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 본 사람이라면 분명히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읽을 때 시 속에 녹아 있는 낭만적인 선율을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작곡가 권 록 록(Trần Quang Lộc), 어울락(베트남): “저는 칭하이 무상사의 시로 만든 음악을 통해 제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낭만적이고 고귀한 시구는 작가의 예술 창작 활동이 긴 역사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그분의 시로 몇 곡을 만들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제가 그랬듯이, 제 음악이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통해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자리한 영감의 원천을 일깨우길 희망합니다.”

작곡가 또 탄언 퉁(Tô Thanh Tùng), 어울락(베트남): “칭하이 무상사님, 이토록 심오한 영성으로 가득한, 낭만적인 시를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는 자연히 풍부한 감명을 선사하며, 그 본질은 풍성하고 그 의미와 구조는 투명합니다. 음악이 시에 날개를 달아 주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확실히 그분의 시가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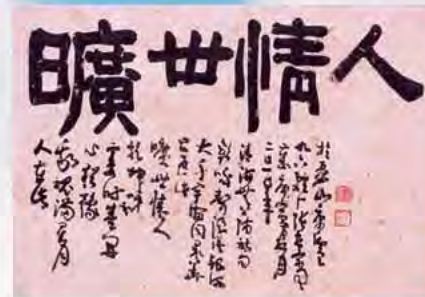


음악을 비상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작곡할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작곡가 김 투언(Kim Tuán), 아을락(에르빈): “칭하이 무상사의 시는 매우 새로운 사고방식을 보여 주며, 강력하면서도 흔치 않은 문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의 정신이 위대하고 심원한 비전으로 향하는 고귀한 사람으로 가득하며, 비범한 내면의 힘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시들은 조용히 독자의 가슴을 파고들어 그 무아한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변모시킵니다. 그들의 표현 양식은 서구 작가들에게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아을락 시인들한테서는 보기 드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시를 작곡했을 때, 이 시들의 창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존경심이 일었습니다.”

장광빈(張光斌) 교수, 포모시(대만): 탁월한 재능으로 포모시의 국보로 알려진 장광빈 교수는 일평생을 서예·서화 발전과 후진 양성에 바쳤으며, 국가문화총회의 ‘예술전승공헌상’과 평정원의 ‘문화상’ 등을 비롯해 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다. 96세의 고령인 장 교수는 중국 회화와 서예, 예술사 연구 등의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를 이루었다. 인생에 대한 열린 마음과 느긋한 태도를 지닌 장 교수의 철학은 아름다운 형식의 예술 작품 속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천년의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은 장 교수는, 우주와 인생에 대한 스승님의 열정과 더불어 시를 통해 전하는, 인류가 지구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키우길 염원하는 기도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런 우주적 사랑이 전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여겼다. 『천년의 사랑』 출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장 교수는 이 시의 한 연을 골라 아름다운 붓글씨를 썼다.



장광빈 교수의 붓글씨 작품.

### 천년의 사랑

당신이 오셨구나! 달과 별, 내 영혼을 차갑하고  
사들었던 내 마음은 이제 한없이 피어나네,  
오, 우주여!  
지금 여기  
내 천년의 사랑이 오셨노라!  
당신이 오시니 무수한 세계가 고양되고  
기쁨의 물결, 저 끝 은하계까지 퍼져 나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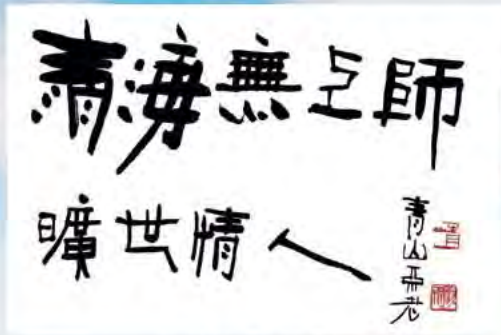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의 시  
2010년 여름 리산아파트에서, 장광빈(96세)

아름다운 예술 작품은 심성을 다듬어 주며 모두에게 내재한 사랑을 일깨우는 법이다. 중국 문화유산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장광빈 교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장이현(張一翊) 교수, 포모시(대만): 국보급 예술가인 장이현 교수는 유명한 현대 수묵화가이자 서예가이다. 칭하이 무상사의 최신 시집 『천년의 사랑』이 출간됐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의 뜻으로 중문판 표지를 써 주었다.

장 교수는 다양한 예술 장르를 섭렵했다. 현대 서양 회화 개념을 중국 전통 문화와 융합시킨 그의 작품은 중국 고전과 서양의 낭만적 특색을 모두 갖춘 독특한 양식을 이루고 있다.





장아한 교수의 붓글씨 작품.

황금시대 5년(2008년) 12월, 포모사 시후 센터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신간 『천상의 예술』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을 때 장 교수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칭하이 무상사의 고귀한 이상에 공감할 뿐 아니라 칭하이 무상사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경탄을 금치 못했다.

장 교수는 85세의 고령이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고루한 틀에 얽매지 않고 낮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고……, 삶의 유년기를 일깨우며 독창성의 본능을 되찾길" 기대한다. '청산(青山)'이라는 낙관에서 그의 젊은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예술 작품을 통해 아름다움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킨 장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우성(吳鷹)**, 포모사대판: 향토를 묘사한 시로 유명한 시인. 그는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읽고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라는 관념은 자신의 실현을 통해 더욱더 친란하고 완전해집니다."

**권우선(林武善)**, 포모사대판: 중문·영문 대역 오디오 시화집 『무한한 하늘』의 작가. "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시인은 그 시로 우리 영혼의 창을 빛내 주며, 우리 마음과 영혼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줍니다. 그분은 만물이 하나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산과 숲, 바다와 동물을 보존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 같이 우리 지구를 새롭게 만들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으니까요. 다들 시를 감상해 보세요!"

**린쉬원일(林新文二)**, 포모사대판: 시즈문화출판사 편집장. "시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단어의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라 단어를 통해 발견되는 깨달은 마음과 신념, 모든 존재에 대한 큰 사랑 때문입니다. 이 시집을 읽어 보면 그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탕메이윈(湯美雲)**, 포모사대판: '탕메이윈 가극단' 단장이자 유명한 민속극 가수. 탕 여사는 오늘날 사회가 이토록 불안정하고 가정에서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불건전한 정신과 의식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칭하이 무상사의 『천년의 사랑』을 거론하면서 "모두가 이 책을 읽는다면 인격과 행동이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탕 여사는 이 책이 증생에 대한 사랑을 비롯해 다양한 관점의 감정과 정서를 다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비건 채식이 요즘 폭넓게 지지층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채식은 자비심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증생을 자비심으로 대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은 이런 평화로움과 진정한



감정, 진정한 선량함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모두에게 권할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위안(康威)**, 포모사(대만): 향토를 사랑하고 토종 생물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작가.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읽은 소감은 이렇습니다.  
음악이 영혼을 우리 근원으로 고양시키듯  
이 시는 세속적인 감정을 승화시킵니다.  
뒤엉킨 열정은 이제 종적을 감추고,  
업연(業緣)이 사라지니 본성이 드러납니다.



1부

깊은 날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





## 나의 집

(칭하이 무상사가 짠 시절에 지은 시)  
어울락어 원시 Nhà Tõi

산허리에 자리 잡은 아늑하고 자그마한 나의 집  
마음을 달래 주는 미풍, 하늘을 살포시 덮은 부드러운 구름  
꽃향기, 푸르른 풀 냄새 천지에 진동하고  
소나무는 달의 여신들 춤에 맞춰 황홀한 콧노래 부르네.

나비들 향기로운 정원에서 나풀거리고  
꽃들이 가느다란 가지 장식하니  
분홍, 노랑, 진홍, 보라, 복숭아빛  
오, 참으로 향긋하여라, 천국으로 가는 길 내내!

푸른 산꼭대기에서 환히 빛나는 달  
허공 속에 퍼지는 평화의 노래  
황금빛 가락은 바람 타고  
청명한 하늘로 피어오르니, 참으로 평온하여라.

포용처럼 친밀한 숲 속 오솔길  
그대의 우아한 발걸음 안아 꿈같은 나날로 들어 올리네.  
저 멀리서 바다는 시에 장단을 맞추어  
환상적인 이 밤을 나와 함께 노래하네.

봄이면 야생화 온 산을 뒤덮고  
여름엔 매미 소리 달콤한 몽상으로 이끌며  
가을이면 카나리아빛 잎새들 창을 수놓고  
겨울에는 불꽃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신나게 노래하지.

사계절 내내 내 마음엔 꽃이 피고  
구름들도 어디서나 다가와 인사를 건네네.  
사랑하는 벗들로 정은 한층 깊어지고  
동물과 새들, 가까운 지인처럼 어울리네!

달 모양의 비파 꺼내 들고  
기쁨에 찬 화음 올리니  
영혼은 사랑의 산을 따라 솟아오르고  
즐거움 마음은 노래 가락 따라가노라.

트랄랄라팔라  
팔랄라트랄라  
트랄랄라팔라  
팔랄라트랄라.





## 그리운 여름

(청하이 무상사가 15세 무렵에 지은 시)  
어울락어 원시 Ha Nhó

그 초여름을 기억하는가?

봉황목이 청춘의 생명력처럼 하늘을 가득 메우고

반 친구들과 교정을 거닐며

십사리 작별하지 못하던 때를, 아아!

반가운 마음 반, 이별의 아쉬움 반

분홍 꽃송이로 서로의 머리를 장식해 주며 정을 표현했지!

이별의 흠먼지 자국 뒤로 지나간 100일이 흐르고

우리 가슴 아픈 작별인 듯 매미들의 슬픈 합창 이어졌네.



4

강과 호수가 만나 반갑게 노래하는  
청록색 바다와 기쁨진 들판으로 너는 떠나고  
나는 나룻배로 드넓은 강을 건너  
어머니와 카사바나무가 있는 작은 마을로 돌아가네.

형제의 배, 담청색 바다와 흰 모래를 가로지를 때  
버드나무는 부드러운 노랫가락을 엮고  
자매의 차, 고원에 들어설 때  
산 구름도 황홀한 미소로 그들을 드리운다.

여기 바람 불고 흠먼지 날리는 도시에 남은 나  
시들어 가는 꽃을 헤아리며 여름 햇살이 사그라지길 기다리네.  
100일이 지나길, 다시 뜨겁게 포옹할 날을  
그늘진 교정의 테라스 밑을 함께 거닐 날을 기다린다.

내 사랑아, 잊지 마, 즐거웠던 우리의 날들을  
다정한 친구들, 존경하는 선생님들, 소중한 관계들을.

금빛 산들바람에 붉은 봉황목이 담장 곳곳에 흠날릴 때  
내 마음속에선 날과 달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적막한 교정처럼 깊고 깊은 그라움에  
기다림의 100일이 100년인 양 소리 없이 지나간다!



5





시인의 여권 집에서, 1980년대 초, 독일 뮌헨  
사진 제공: 시인의 전 남편



## 어느 날

(칭하이 무상사가 짙은 시절에 지은 시)  
어울락어 원시 Một Ngày

학교 수업이 없던 어느 날  
아빠와 함께 고향 마을을 찾아갔었네.  
예전의 낫익은 버스가  
논둑길을 따라 달렸지.

양 길가로 향미(香味)가  
밭그레한 햇살 속에 황금물결 이루고  
여기 집 한 채, 저기 붉은 기와지붕 하나  
들만을 가득 메운 로즈애플과 망고들.

여름 바람에 꼬리를 마구 흔들며  
얼룩 강아지가 버스 뒤를 쫓아왔네.  
버스가 지나간 자리마다 붉은 흙먼지 자욱하고  
대나무 숲은 저 멀리 흐릿해졌지…….


높은 물소 떼는 어리둥절해  
길 쪽을 바라보고  
황새 떼는 더없이 우아하게  
끝없이 펼쳐진 풍요로운 들판 위로 날아올랐네.

황소 두 마리 있는 힘껏  
누런 건초더미 끌어당기고  
삐걱거리는 수레를 힘겹게 끌며  
서서히 시간의 짐을 나르고 있었지.

은백색 산등성이를 지나니  
세찬 바람 따라 향기가 물씬!  
여기저기 흩뿌려진 수백 송이 고산화  
분홍빛 난, 자줏빛 도금양.

이윽고 다리를 건널 때  
장난기 많은 강물은 강기슭에 잔물결 일으키며  
수련은 부드럽게 노를 어루만지고  
부레옥잠도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었네…….





버스가 설 때마다  
신선한 바나나와 달콤한 꿀,  
감초에 절인 아삭아삭한 암바렐라 내미는  
친절한 상인들로 북적북적!

도넛과 찹쌀떡  
찐 옥수수와 구운 땅콩  
코코넛과 사탕수수즙  
사철 내내 향기로웠던 나의 고향!

긴장한 일꾼들 맞이  
어깨에 짐을 둘러메어 나르고  
여행객들은 사방을 물려다니며  
새해처럼 부산하기만 하였네.

\*\*\*

순조롭게 달려가던 버스  
와자지절 즐겁게 떠들던 승객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조각나고 땅이 솟구치니  
서로의 몸들이 뒤엉키어 한 더미가 되었네!

폭발로 버스는 산산조각이 나고  
기사는 머리가 날아가 버렸네.  
승객 하나는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한쪽 다리만 남은 이는 교각 옆에 떨어져 버렸네!

한 여인과 태아는  
붉은 피 웅덩이에서 가쁜 숨을 헐떡이고  
아장거리는 천진한 아이 둘은  
깊은 강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네!

백발의 할머니  
두 손엔 여전히 빈랑나무 화분 쥐어져 있건만  
그녀의 영혼은 사라져 버렸으니  
어디로 갔는지 그 누가 알까……?!

살아남은 다른 세 사람과 함께  
아빠는 상처를 움켜쥐었네.  
핏줄기 똑똑 떨어트리며  
길을 따라 겨우 몸을 움직였네……!



## 하루는

(칭하이 무상사가 16세 무렵에 지은 시)  
어울락어 원시 Và Một Ngày

하루는 산에 올라  
어린 시절 살던  
숲 속 작은 오두막집을 찾았네  
강 상류에서 미역을 감곤 했던 그곳을.

그때는 전쟁 시절  
마을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에 나섰다.  
부모님은 돌밭을 일구고  
어린 딸들을 지켜 주셨네.  
산비탈의 초라한 초가집은  
떨어지는 폭탄과 빗발치는 총알과는 떨어져 있었지!

나는 기억하네, 카사바로 연명하고  
반쯤 비기 일췌이던 밥그릇을.  
나는 기억하네, 흑현의 추운 밤을  
뜰 밖에서 포효하던 표범과 호랑이들을!

나는 기억하네, 달 밝은 늦은 밤과  
향긋한 난초의 은은한 꽃 내음을.  
수탉은 신이 나서 새 아침을 알리곤 했지  
평화로웠던 시절처럼!

이곳은 친구들과 종종  
여름 햇볕을 피하던 곳.  
파릇파릇한 나뭇가지 아래서  
노란 고구마를 한쪽씩 나눠 먹었지!

어린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이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건만  
깊은 유대감은 갈가리 찢겨지고  
영문도 모르는 강 하나로 갈라지고 말았네……!

하루는 산에 올라  
어릴 적 추억에 잠겨  
바라보았네, 그 옛날의 산과 숲  
그리고 내 젊은 날 전쟁의 상흔을……!



##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 '음양의 전투'

(1995년 포모사 시후 센터)

이 작품에서 인간 본성의 음과 양이라는 대립적인 역할을 맡은 두 남자는 환상의 세계에 갇힌 채 긍정과 부정, 진리와 가짜라는 운명적인 결투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싸움에 몰두한 나머지 그들 주변의 서서히 타오르는 불로 상징된 세속을 벗어나려던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차갑고 냉담한 여자(아랑)의 도구가 그들 앞에서 "너희는 내 종계 하에 있다. 나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너희와 놀아 주고 있다. 서두를 것 없다. 서서히 불에 구워져라. 느긋하게 고통을 즐겨라" 하며 경멸하듯 비웃고 있지만, 그들에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주: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 속에서 태점이 되고 있는 불은 낮고 재미하게 그려져 있으며 아주 친절히 타오르고 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진짜처럼 보이는 환상의 세계에 현혹되지 말라고 일깨워 준다. 깨달은 스승을 따라 수행을 해야만 세속의 환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16

사진: 시인



2부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

17



## 강아지의 마음

(칭하이 무상사가 20대 후반에 지은 시)  
어울락이 원시 Lôi Chú Vên

나는 그저 작은 강아지  
하지만 내 사랑은 흘러넘치고  
보호자에게 온 마음을 바쳐요,  
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당신의 너그러움에 감사해요.  
이 작은 생명 돌봐 주시고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물,  
부드러운 잠자리, 포근한 담요까지 주셔서.

내 마음에는 오직 당신뿐  
유일한 우상이자 삶의 주인.  
매일매일 문가에서 기다리고  
밤이면 당신의 안전을 지켜 드려요.

오, 당신은 어쩔 그리도 아름다운지.  
내 눈길은 언제까지나 당신한테 머물러요.  
당신의 손길, 부드럽게 마음 달래 주고  
나의 존재를 빛내 주세요!

말할 수 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가 버리면 마음이 괴로워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당신을 위해 죽어야 한다면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미소지을 거예요…….

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칭하이 무상사  
구조한 반려견 Lucky와 함께  
2005년 9월, 프랑스 부르주



## 암탉의 말

(칭하이 무상사가 20대 후반에 지은 시)  
어울락어 원시 Lǐ Gà Mái

오늘 아침 들뜬에 나가  
당당한 모습으로 산과 강에 인사를 건넸어요.  
천진하고 어린 나의 아가들과  
연못에서 헤엄도 치고 목욕도 했지요.

엄마 뒤에 바짝 붙어 짹짹거리고  
고운 빛깔 띠기 시작한 여린 깃털,  
작은 콩알 같은 둥근 눈을 가진  
오, 내 아가들, 어쩐 이리도 사랑스러울까!

옥수수과 곡물을 주는 인간에게 고마워하며  
날마다 근심 없이 마냥 행복했어요.  
깨끗하고 맑은 물, 그늘을 드리운 나무들  
산들바람 솔솔 부는 푸른 풀밭

파란 하늘, 옅은 구름, 졸졸 흐르는 시냇물.  
동화 속 꿈같은 삶이었어요.  
평화롭고 안전한 나날에  
창조주께 감사했어요.

그러다 예기치 않은 재앙이 닥쳤지요.  
갑자기 그들이 나를 덮쳤고  
예리한 칼날이 한순간 번뜩이더니  
비명소리도 피 튀기는 가운데 찾아들었어요.

아가들을 두고 떠나는  
엄마의 마음은 갈가리 찢어져요.  
제발…… 나…… 대신……  
내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들을…… 죽이지…… 말아요!  
내…… 소중한…… 아가들을!



사촌 동생과 함께하신 시인  
14세 때, 어울락 봉선



## 아기 돼지의 말

(칭하이 무상사가 20대 후반에 지은 시)  
어울락어 원시 Lôi Lợn Con


당신을 처음 만난 건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  
분홍빛에 통통한 나, 아주 토실토실했어요.  
난 엄마와 까불까불 장난치고 놀았어요.

당신은 날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칭찬했어요. "와, 정말 통통하고 귀엽구나!"  
당신은 날이면 날마다 들러  
시원한 물과 맛있는 채소를 주곤 하셨지요…….

엄마와 난 정말 감동했어요  
황금보다 귀한 당신의 친절에.  
당신의 관심과 보호 아래  
나는 평화로이 살아갔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토실토실해졌지요.  
그저 먹고, 쉬고, 놀고…….





A rural scene with thatched-roof huts and pigs in a field. The background shows a large thatched-roof hut with a wooden fence in front. In the foreground, several pigs are grazing in a green field. The sky is blue with some clouds.

오늘 새벽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구름이 지평선 너머로 떠다니고  
난 엄마와 꼭 붙어 있었어요  
다가오는 비극은 알지도 못한 채!

호랑이와 코끼리같이 힘센  
긴장한 두 청년이  
작은 내 몸을 무시무시한 우리 속에  
납작 밀어 넣었어요.  
도망칠 길도 없는데  
오, 하느님, 이게 무슨 지옥인가요?

나는 무섭고 겁에 질려 울부짖었어요.  
엄마, 엄마, 살려 주세요.  
오, 보호자님, 빨리 와서 보호해 주세요.  
제 목숨을 구해 주세요! 저는 아직 어리잖아요!

엄마는 슬픔에 겨워 울부짖고  
그 두 눈엔 절망의 눈물이 가득했어요.  
드넓은 천국도 이 끔찍하고 가슴 에는 고통을  
다 담진 못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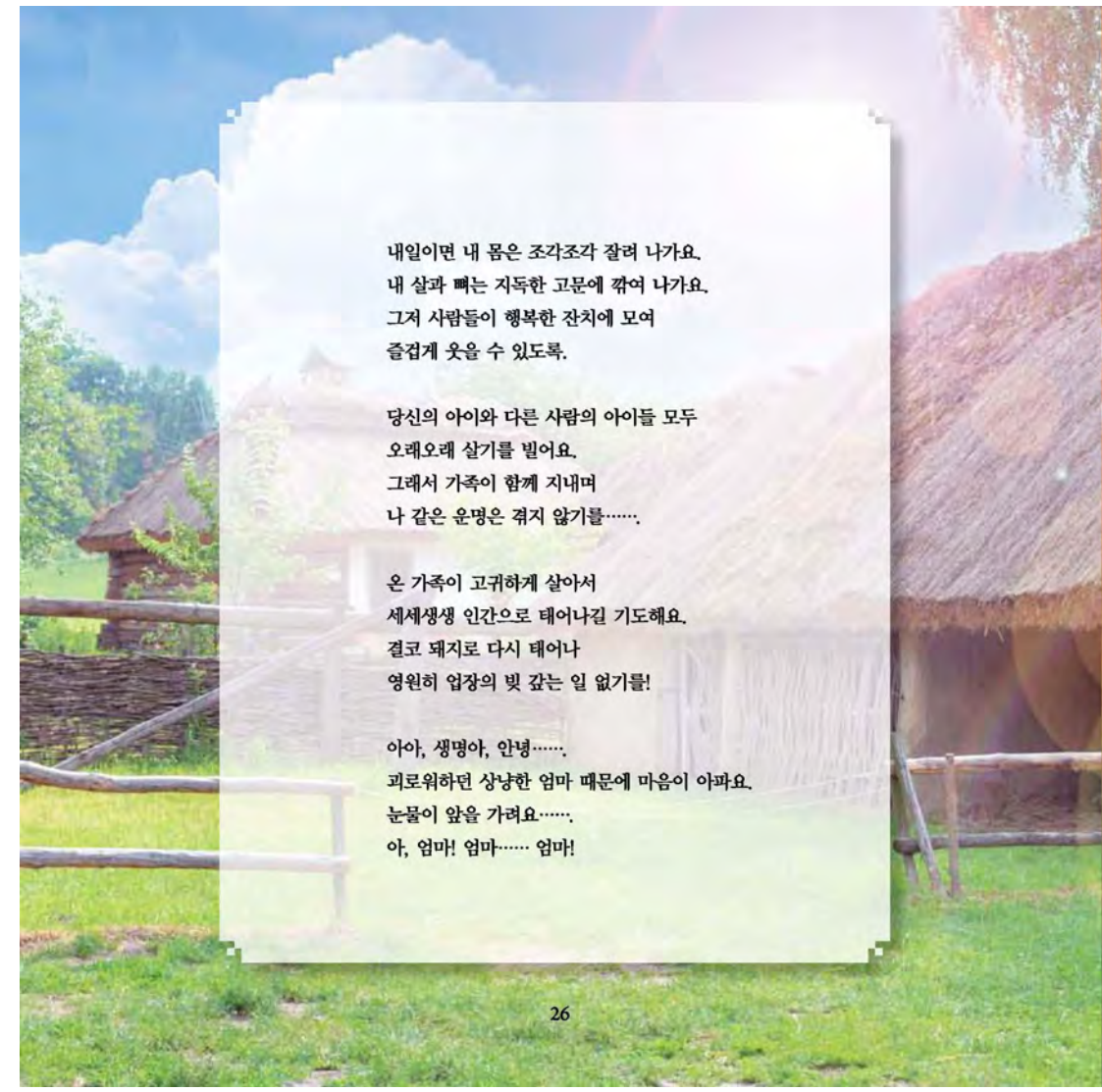
나의 보호자는 등을 돌렸고  
그의 두 손은 돈을 세느라 바빴어요.  
불행한 나는 차 집간을 뒹굴었어요.  
젖어진 가슴이 육신의 불행보다 더 아팠어요!

두 청년이 놀러왔어요.  
이 새끼 돼지 정말 맛있겠다!  
내일 애를 잡아서  
아내가 아기 낳은 것을 축하해야지!

아, 삶은 어쩌면 이렇게도 모순적인지!  
내 영혼은 산산이 부서지고  
가슴속엔 눈물이 흘러요  
핏물이 개울을 이루듯.

당신이 날 사랑해서  
다 자라도록 키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건 속임수,  
그저 돈벌이였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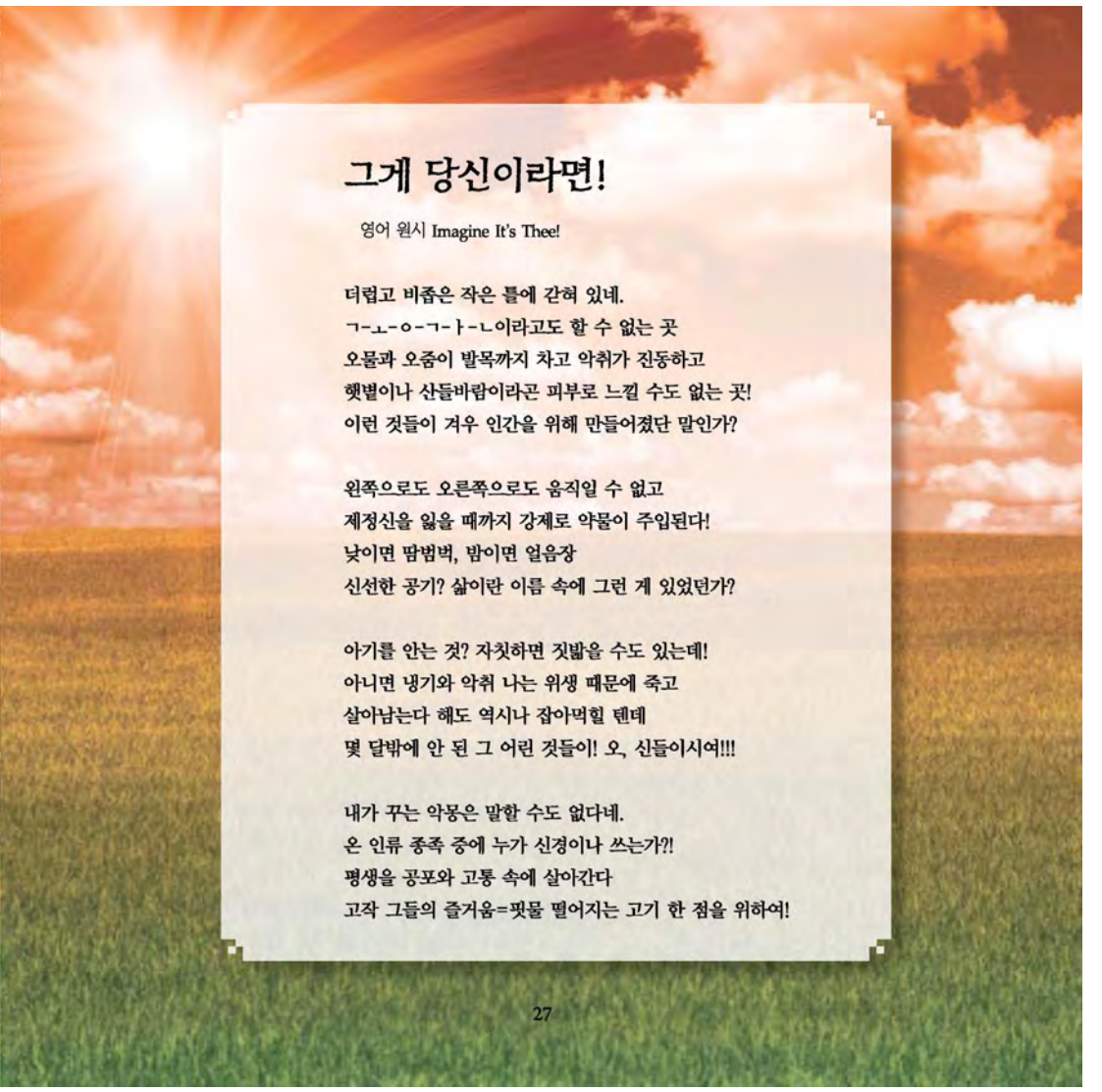


내일이면 내 몸은 조각조각 잘려 나가요,  
내 살과 뼈는 지독한 고문에 꺾여 나가요,  
그저 사람들이 행복한 잔치에 모여  
즐겁게 웃을 수 있도록.

당신의 아이와 다른 사람의 아이들 모두  
오래오래 살기를 빌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지내며  
나 같은 운명은 겪지 않기를…….

온 가족이 고귀하게 살아서  
세세생생 인간으로 태어나길 기도해요.  
결코 돼지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업장의 빛 갠 일 없기를!

아아, 생명이야, 안녕…….  
괴로워하던 상냥한 엄마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아, 엄마! 엄마…… 엄마!



## 그게 당신이라면!

영어 원시 Imagine It's Thee!

더럽고 비좁은 작은 틀에 갇혀 있네.  
기-고-오-기-기-니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곳  
오물과 오줌이 발목까지 차고 악취가 진동하고  
햇볕이나 산들바람이라곤 피부로 느낄 수도 없는 곳!  
이런 것들이 겨우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단 말인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계정신을 잃을 때까지 강제로 악물이 주입된다!  
낮이면 땀범벅, 밤이면 얼음장  
신선한 공기? 삶이란 이름 속에 그런 게 있었는가?

아기를 안는 것? 자칫하면 짓밟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냉기와 악취 나는 위생 때문에 죽고  
살아남는다 해도 역시나 잡아먹힐 텐데  
몇 달밖에 안 된 그 어린 것들이! 오, 신들이시여!!!

내가 꾸는 악몽은 말할 수도 없네.  
온 인류 종족 중에 누가 신경이나 쓰는가?!  
평생을 공포와 고통 속에 살아간다  
고작 그들의 즐거움=핏물 떨어지는 고기 한 점을 위하여!



흔들거리는 트럭에서 겨우 버티다  
어디로든 실려 가 사지가 벌러져 찢긴다.  
아니면 천장에 한쪽 다리로 매달리든가!  
극악한 범죄자나 된 듯 목구멍을 찢리고  
내장과 피가 사방으로 쏟아져 나온다  
통곡과 애원, 피로움에 찬 비명소리 가득한 가운데!

어찌 그 광경을 견딜 수 있는가, 즐길 수 있는가?  
다들 병어리에 귀머거리, 장님이라도 되었나?  
언제부터 인간이 그토록 잔인해졌나  
사랑의 품성, 선량한 품성을 모두 잃어버렸나?

발로 차고, 찌르고, 저미고, 고문하니  
오, 그 고통, 도무지 견딜 수가 없구나!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다……! 거기 누구 좀 없어요……?!  
어찌 사방 곳곳엔 온통 피, 피, 피뿐인가.  
어둡고 공포만 가득한 짙은 이 벽 안에는  
도끼와 그림자 말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힘센 그림자들, 날카로운 도끼들  
나는 겁에 질렸네. 작은 나는 벌벌 떨며 속수무책일 뿐.

오! 지옥이 있는지 몰랐다면  
와서 보시라, 이곳이 바로 그곳이니!  
사랑하는 인간 친구들이여,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왜, 왜 당신네는 나를 괴롭히고 먹어야만 하는가?

그게 당신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게 당신의 가족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보라!





참하이 무상사의 그림 '봄의 미소'  
2007~2008년, 모나코

3부

시공을 초월한 사랑



## 천년의 사랑

어울락어 원시 Người Tình Thiên Cổ

오늘 밤 반짝이는 별 아래 누우니  
생각은 머나먼 행성의 그이와 함께하네.  
시간도 공간도 성스러운 우리 사랑 갈라놓지 못하건만  
천년의 기다림에 내 가슴은 시들어 간다.

끝없는 운회 속에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  
수백만 은하계를 찾아 헤매다  
험난한 수천 세계에서 지쳐 버린 발걸음  
당신은 아시는지?

구름 타고 머나먼 세계 여행하며  
당신은 우주 곳곳에 사랑을 전하네  
내 마음은 홀로 떠돌게 두고,  
기억하시는가, 그 옛날 사랑의 불꽃을?

나, 온 우주를 떠돌아 다녔네  
내 사랑, 당신과 다시 만나길 갈망하며,  
수천 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기다리건만  
나의 현신이 결코 시들지 않듯 시간도 끝없이 계속되는구나!

오, 기억 속의 눈빛은 푸른 바다인 듯  
내 영혼 밝히는 찬란한 별들인 듯.  
저물녘 황금빛 구름 같은 부드러운 머릿결  
우리 열렬했던 옛사랑의 꿈을 짜고 있구나!



당신의 우아한 실루엣, 겨울 별판에 온기를 주고  
섬세한 발자국에 조약돌마저 덮을 잃네.  
사랑스러운 미소에 봄꽃들 피어나고  
달콤한 자장가 소리, 저녁 새들 달래 주네.

나긋나긋한 당신의 발 미끄러져 나갈 적에  
산도 숲도 기뻐하고  
에메랄드빛 어린 풀잎,  
질푸른 하늘 속 구름들과 춤을 추네.  
자연은 꿈에 젖고  
개울과 삼림은 노래로 가득한데  
가을과 겨울이 수천 번 지났건만  
달은 아직도 취해 있구나.  
내 마음처럼  
사랑은 영원하고.....  
당신을 그리는 마음 끊어 없어라.  
당신을 꽃으로 뒤덮인 옥좌에 앉히려라  
지구별이 장엄히 빛날 수 있도록!

당신이 오셨구나! 달과 별, 내 영혼을 치장하고  
시들었던 내 마음은 이제 한없이 피어나네.  
오, 우주여!  
지금 여기  
내 천년의 사랑이 오셨노라!  
당신이 오시니 무수한 세계가 고양되고  
기쁨의 물결, 저 끝 은하계까지 퍼져 나가네.

하지만 우리 눈가에선 수천의 별들 침묵하고  
당신과 나, 친숙하면서도 낯설다니  
무어라 할까, 굴곡진 삶에 이리 멀어진 것일까?

기억하지 못하시나, 우리가 왔던 그 옛 행성을?  
그리고 비 오는 밤의 이불처럼 친밀했던 순간들을.  
시간을 초월한 사랑, 이제 불현듯 어색하니  
차가운 조약돌, 끝 모를 바다 밑을 구르고 있네.



불안한 눈길로 우리 이별을 응시하니  
이생에, 아니면 영겁 후에라도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낮이 밤으로 바뀌고, 베갯잇이 눈물에 젖을 때  
달과 별은 희미해지고,

구름은 애끓는 마음에 잠겨 버리네.  
한없는 이 괴로움을 당신은 아시는지?  
보름달을 바라보며

달이 이울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드넓은 대양 속에서  
내 갈망의 눈물방울 볼 수 있나요!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나요?


겨울바람은 음울한 소리로 길게 울부짖고  
이쪽엔 빗방울 여전한데 그쪽엔 남아 있지 않네.  
저녁이 깊어지니 황혼도 마지못해 사라지고  
또 다른 밤이 찾아와 백 년을 가는구나…….

오, 내 사랑아!  
우리 차라리 꿈에서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몇 발짝 거리인데 산처럼 떨어져 있을 거라면.  
주체 못 할 눈물 감추려 눈길을 떨구니  
겨울비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수천의 말들  
폭포 되어 대양 속으로 떨어지네.  
하늘도 땅도 가없이 여겨 손을 뻗어 감싸 안는데  
당신에겐 장미, 내 가슴속에선 칼날인가?

무한한 공간  
영원한 시간  
세세생생의 경이로운 인연  
영원히 사라져 버렸네.

왜 아직도 슬픔이 뱀도는 걸까?  
왜 나의 감정은 시들지 않는 걸까?  
곳곳마다 남겨진 우리 발자취를 회상하노라면  
무수히 많은 별들, 당신 이름으로 반짝였건만  
이제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구나.





흰 구름에게 내 사랑을 보내네  
높은 산에게  
부드러운 산들바람 속으로……,  
달과 별이 남긴 흔적  
가만히 붙잡아 보네  
내 마음 말라 죽지 않도록.

오, 내 사랑, 기억하지 못하시나  
우리 지난 운명의 자취를?  
바람결에 보내 주오  
작은 속삭임을,  
“우리 서로 영원토록 잊지 말자!”

청아씨 무상사  
2009년 8월 29일, 프랑스 카프 마르탱



## 한밤의 꿈

(칭하이 무상사가 짧은 시절에 지은 시)  
어울락어 원시 *Mo Dêm*

이 아름다운 시는 오스카상을 두 차례 수상한 작곡가 앨 카샤(Al Kasha)가 곡을 붙이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개국 4주년 기념 음악회 '평화를 선물하자'에서 토니상 후보였고 에미상을 수상한 가수 리즈 켈러웨이(Liz Callaway)가 불러서 소개되었다.

지난밤 꿈을 꾸었네  
편안한 이부자리와 베개를  
공기 속에 감도는 향기로운 백단향을.  
진심이었던 그 시절  
우리 아직 함께였고  
우리 사랑 아직 영원했는지.

지난밤 꿈에  
홍진(紅塵) 세상을 떠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낙원으로 향했네.  
향기로운 산허리에서  
모든 시름 놓아 버리니  
슬픔도 번뇌도 사라져 버렸네.

오늘 밤 집으로 오는 길,  
산비는 심 없이 툭툭 떨어지고  
수레바퀴 쓸쓸한 길 위를 구르는데  
구름은 초라하게 걸려 있네.  
환상의 인간세계 잊으려  
꿈을 초대하네  
주옥같은 꿈을!

내 연인이! 내 사랑!  
그 옛날의 소중한 향기 찾아  
강물은 하염없이 흘러가네.  
오래도록 기쁨 넘치고  
인간의 운명 만족스럽고  
모든 불만 잠잠해질 그곳으로.

지난밤 꿈에  
난 백조가 되어  
산 위로 날아올랐네.  
흰 눈을 들이마시고  
무지개에 몸을 적시며  
다시 자유를 느꼈네  
다시 자유를 느꼈네.



## 시간의 그늘

어울락어 원시 Khuất Nèo Thời Gian

당신은 새의 흔적인 듯  
저 먼 곳에서 솟아오르고  
나는 밤이슬로 돌아와  
망각 속에 녹아든다!

당신은 달빛  
모든 인생 길 두루 비추고  
나는 셋별  
늦게 떠올라 아득히 희미해진다!

42

먼 옛날의 사랑이 찾아왔건만  
어찌하여 열정은 하늘의 구름처럼 멀기만 한가.  
차라리 꿈에서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랑의 말은 단순하고  
서로를 찾는 손길 따스하고 친숙하리니.

시간아, 아, 시간아!  
감정이란 어찌 이리도 부서지기 쉬운가  
밤 그림자처럼.  
차라리 꿈에서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옛사랑의 불꽃 야끼고  
옛날의 시 사랑하던 꿈에서.

당신은 태양의 나라  
더없이 찬란히 빛나고  
나는 들에 핀 난초  
부드러운 향기에 감싸인다!

당신은 지나가는 배처럼  
해안에서 영원히 멀어지고  
나는 겨울비에 녹아  
한없이 떠내려간다!

43



## 고대의 사랑

(칭하이 무상사가 20세에 지은 시)  
어울락어 원시 Tinh Xua

돌아와 보니 사랑은 퇴색해 버린 듯  
애정의 맹세도 땅속 속에 사라져 버렸다.  
옛 수도에서 한 사람은 망설이고  
높은 탑 속에서 그의 연인은 운명을 생각하노라.

눈물 같은 안개, 창공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매혹적인 미소, 누각에 떨어지는 빗소리 속으로 번져드는데  
밤이면 고뇌 속에 잠이 들고  
가슴은 꺼져 가는 양초처럼 파닥인다.

옛날 옛적, 제왕의 예복 걸치고  
금빛 걸음걸이, 은빛 펜, 사랑하는 왕족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하지만 이제, 환상의 꿈은 사라졌고  
나비의 꿈, 희미한 성운(星雲) 속에 날갯짓할 뿐.

모든 왕국을 지배하려던 덧없는 꿈에  
성과 요새는 폐허가 되고, 슬픔도 함께 운회했다.  
아아, 여린 사랑은 거친 바람과 흩어지는 구름 속에 사라지고  
가녀린 꽃들도 저 멀리 가을 언덕에서 시들어 버렸다.

옛날 옛적, 날 사랑했던 당신  
청춘과 아름다움, 감미롭게 나눴지만 이제 모두 공허할 뿐.  
검은 밤, 흰 양초는 기울고  
깜박거리는 불빛 속에 나타나는 우리 전생의 업연…….

독경 소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고  
이 염주를 쥐고 덧없는 삶에 작별을 고하니  
영겁의 꿈에서 서서히 깨어나  
문득 깨우쳐 우리 진면목을 재발견하노라.



## 내 마음의 왕

어울라어 원시 Vương Hoàng

우리 마지막 만남 지 십 년  
산이 막고 강이 막아 멀리 멀어졌건만  
오늘 저녁 뜻밖의 재회에  
바닷가 나라가 환호한다  
한껏 들며서!

옛날의 감정 새삼 묘하게 느껴지고  
옛정도 파도처럼 일어나는데  
심장은 쿵쿵쿵쿵  
아, 축제보구나!  
내딛는 걸음걸음 사분사분.

눈 깜짝할 새 마음을 빼앗기고  
눈길 한 번에 즐거운 꿈결 속에 빠져드네.  
십 년 동안 추억이라 생각했던 사랑  
지금 예고 없이 밀려와 넘쳐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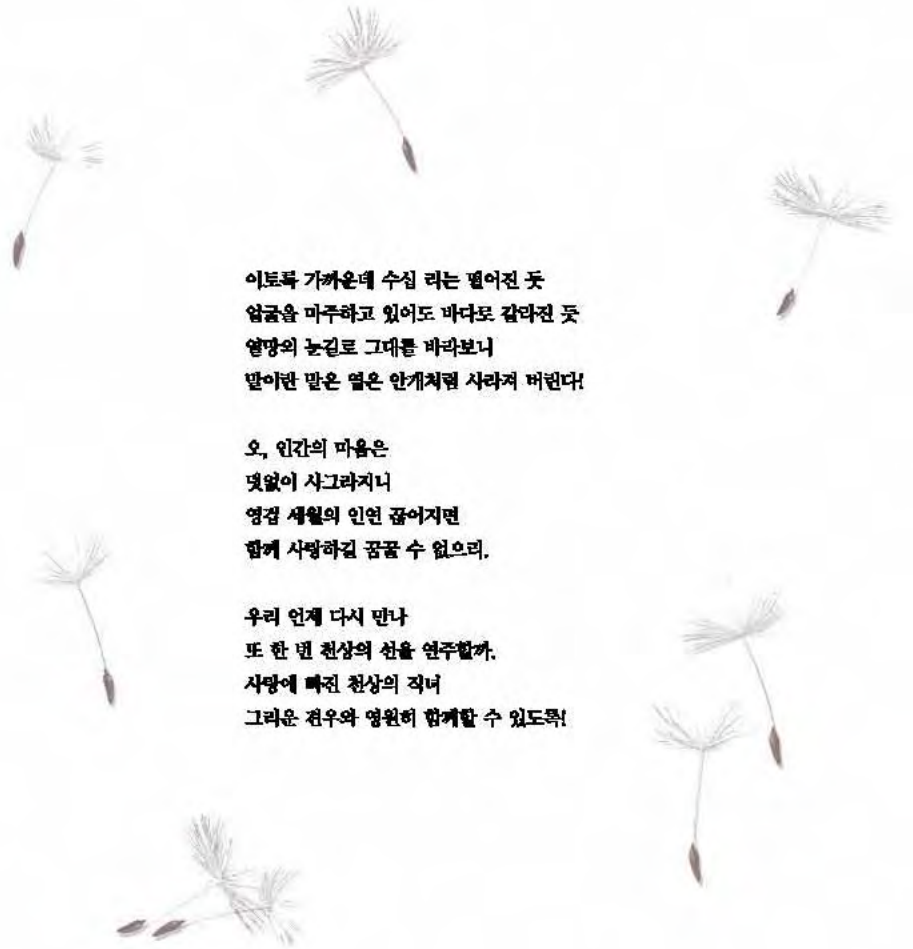
여러 생이 지나서야 오신 그대  
더욱 아름답고 우아하고 기품 있이라.  
친밀했던 그 시절 다시 오길 꿈꾸며  
황홀한 가슴은 두근두근.

오, 내 마음의 왕이시여  
우리의 길 그토록 자주 잊었으나  
이제야 그대, 내 삶으로 되돌아오니  
그 옛날의 음악 여전히 아름다운가……?

지난 시절의 노랫가락 아직도 울리는가  
혹 가슴속 음악 잿아들이 버렸나?  
사랑의 꽃다발 속 오래된 꽃들  
여전히 침실에서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가?

목이 데고 입술도 펴이지 않네.  
어쩔 줄 몰라 눈물이 앞을 가리고  
사랑에 들뜬 심장은 고동치건만  
힘이 없어, 느릿한 발걸음 주저하고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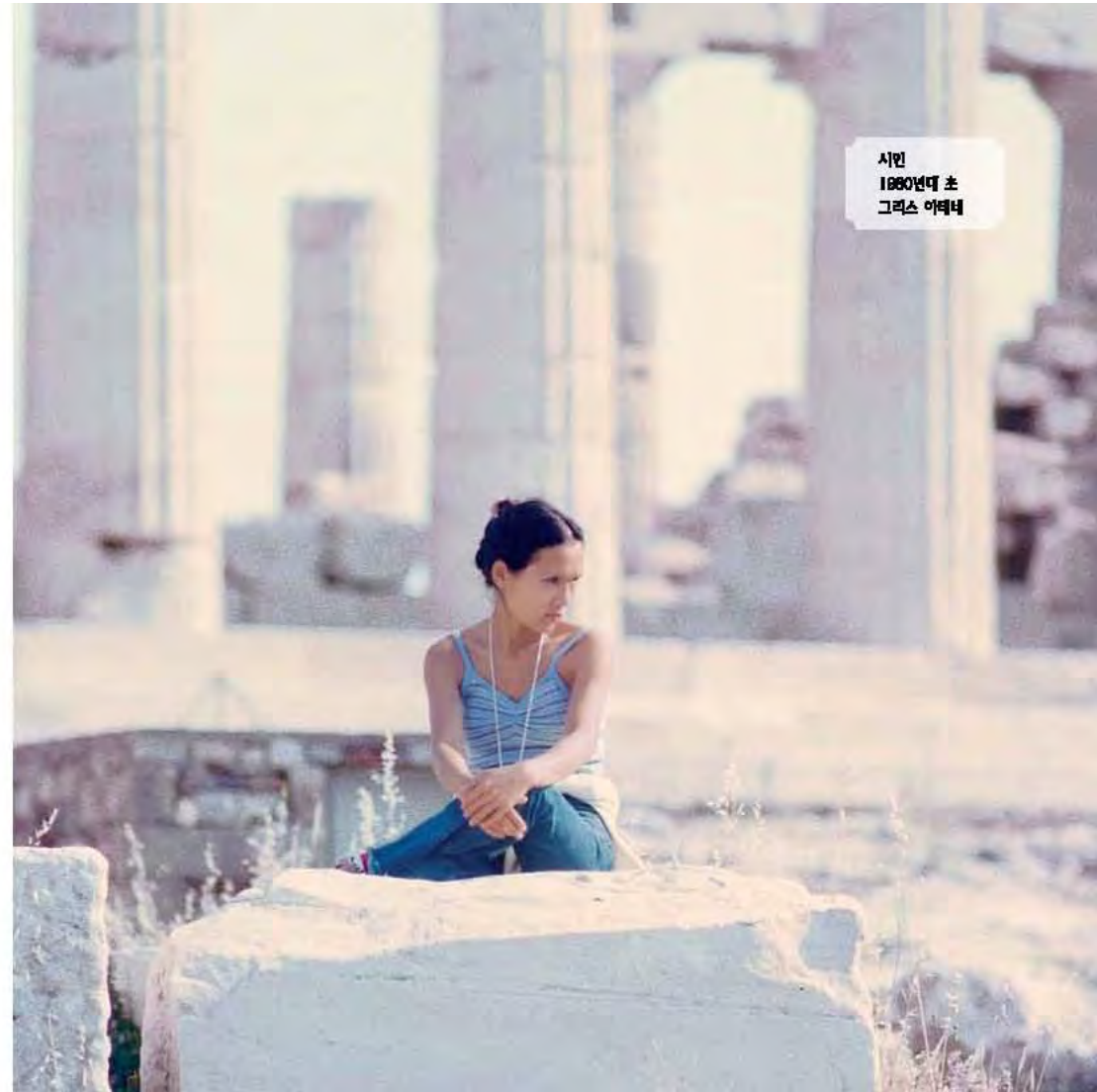




이토록 가까운데 수십 리는 떨어진 듯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바다로 갈라진 듯  
열망의 눈길로 그대를 바라보니  
달아난 말은 얼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

오, 인간의 마음은  
덧없이 사그라지니  
영감 세월의 인연 끊어지면  
함께 사랑하길 꿈꿀 수 없으리.

우리 언제 다시 만나  
또 한 번 천상의 선을 연주할까.  
사랑에 빠진 천상의 작녀  
그리운 전우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시인  
1880년대 초  
그리스 아테네



## 세세생생의 내 사랑에게

영어 원시 To the Love of My Lives

유사(微沙)가 휩쓸고 가니  
사람의 소중한 황금기 대부분은  
지난 생의 기억 속으로  
스르르 빠져나간다.  
10만 9천5백 일  
그리고 며칠 더.....  
그게 우리가 헤어져 있던  
지상에서의 시간인데  
어찌 우리 이별을 말하였던가!?

오, 나의 왕자님  
소중한 님이여.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군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50

온 우주는 그저 지켜볼 뿐.....  
도올 길 없으랴!  
마음의 증인은  
침묵을 지킬 뿐!  
황금빛 대문과 금단의 요새들  
저 멀리 사랑을 잠가 버린다!  
부와 명예도  
인간의 진실한 감정을 가두는구나.

내 사랑은 자유롭고 싶긴 한 것인데!  
지나간 사랑  
운명 너머로 솟아올라  
다시 꽃피울 수나 있을까?

이 행성에서 우리 다시 만난 지  
어느덧 십 년.  
내 심장은 하염없이 비참하게 고통치며  
하늘에 묻는다  
운명은 어찌 이리도 무정한가!

51



수많은 봄이 오가고  
신께선 세상 곳곳에  
꽃들을 새로 보내 주신다.  
누군가는 그 옛사랑이 필요할 뿐인데  
신은 어찌 외면하시는가!

세월엔 벽이 없다지만  
영원했던 사랑마저  
갈라놓으니  
현재와 미래 사이  
마음은 알 길이 없어라.

가을 낙엽들  
소중한 열정의 흔적 모두 덮어 버리고  
매서운 겨울바람  
지난 사랑의 발자국들  
모두 지우네!  
우리는 소중한 사람  
혹은 무관한 사람이 되어  
잠든 추억을 잊어버리거나 기억한다.

기억하는 이는  
몹시도 슬프리라!  
잊어버린 이도  
그리 행복하진 않겠지.

천국일 텐데,  
우리 둘 함께  
같은 기억 되살려 낸다면.

추신: 왕자님께  
가벼운 기분 전환으로  
미소가 피어날 수 있길.  
혹시나 가능하면!



## 왕자님께

영어 원시 To Prince

비스트로 드 파리를 지나는데  
왜 저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오! 왕자님!  
순간 내 심장은 멎고 말았네  
그토록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거의 잊고 있었네  
당신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매력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일 수도.  
~ 지혜의 불꽃으로  
빛나는 눈동자.  
~ 위엄 서린 얼굴  
진심과 따스함이 흐르는 당신의 이야기.  
~ 놀랍고도 으스스해진 나는  
멀리서 흠모의 눈길로 당신을 바라보네.

54

이미 이 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당신  
아름다움만으로도 모든 이의 마음 녹이리라.  
(특히 나의 마음을!)  
한결 평온해진 마음으로  
우아하게 임무 수행하는 당신을 본다…….

하지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미소 뒤에  
얽게 드리워진 외로움 느껴졌던가?

오! 어찌해야 잠시나마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당신 손 맞잡고 함께 걸으며.  
이 덧없는 세상에는  
당신께 바칠 것도 별로 없거늘.

당신에게 살짝이라도  
상그릴라를 보여 주고 싶어라  
인간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에텐동산을.  
아니면 그저 안마해 주며  
당신의 영혼에 노래 불러 주리라.

55



당신이 아직  
가 본 적 없는  
머나먼 나라의 가락을 연주해 주고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아니면 그저 당신의 지친 머리  
자줏빛 구름 베개에 누이고  
순수한 사랑의 거리로 데려가  
향기로운 장미 꽃잎 물에 씻어 주리라.  
은은한 촛불  
부드러운 선을 속에서.

지혜와 놀라운 이야기 가득한  
고대의 설화를 읽어 주리라.  
아니면 동방의 연꽃보다 달콤한  
꿈속으로 보내 주리라!  
여름비보다 시원한 꿈속으로…….

아니면 우리 잔뜩 위장한 채  
남몰래 영화관에 들어가  
팝콘 먹고 소다수 마시며  
배우들 연기에 웃고 울어 볼까.  
뭇된 등장인물 놓고 트집도 잡으면서.

그런 다음엔 중국 식당에 가서  
당신 젓가락 솜씨를 뽐내도 좋으리라.  
아니면 그저 손잡고 앉아 있거나  
키득거리며 저녁 공원을 돌아다니거나  
장작 오븐에서 갓 구워 낸 피자를 먹으며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나 나눠 볼까.

아! 놀랍도록 매력적인 당신의 용모  
그 어느 때보다 더 마음을 사로잡아  
이 모든 것, 그 이상을 꿈꾸게 하는구나.

♪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모든 기쁨과 행복  
함께 나눌 사람 없다면!  
외로움은 이따금씩  
감당 못 하게 불친절할 수도 있는 법!

……그때! 우린 전에 이런 걸 다 했었지.  
그때는 우리 둘 다 기억하고 있었네  
마지막 장막이 차갑게 드리우기 전,  
인생의 각본이 새로 쓰이기 전에 어땠는지.  
그때는 우리  
서로의 눈을 한없이 바라보았고  
그때는 우리 사랑이 생명이었지!



지금 이 세상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네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당신이 여기 내려온 건 내게 반가운 일이지만.  
이것이 물질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이겠지.  
그나마 잠깐의 눈맞춤일 뿐이지만!

삶의 연속적인 순환 속에  
우리 만나고  
우리 헤어지고……  
오, 그러길 몇 번이던가!  
여러 생의 연인을 만나는 건  
아직도 큰 고통이자 큰 기쁨.  
이리도 가까운데 그리도 멀다니!  
그래서 마음은 조바심치고  
그 옛날 그곳들이 그렇기만 하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창하이 무상사  
2009년 8월 15일, 프랑스 카프 마르탱



## 왕자님께 드리는 축하 인사

영어 원시 Congratulatory Note to Prince

축복하는 인파 너머로  
내 사랑 그 눈부신 얼굴 스치듯 보기도 어렵고  
나의 격려는 환호성에 거의 묻혀 버립니다.  
어떤 이는 미소 짓고  
어떤 이는 눈물짓는 가운데  
새로운 왕이 나타나  
앞으로의 평화와 번영의 꿈을 가져다줍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사랑스런 백성들과  
나 함께 기뻐하며  
전하께  
당신이 수행하시는 그 고귀한 일에  
하늘과 땅이 돌보시길 기원합니다.  
축복이 가득 넘쳐흐르시길  
당신의 앞날이 평탄하시길  
당신의 나날이 비단결처럼 순탄하시길  
당신이 완벽한 아들임을 아시고  
천국에 계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시길.

바닷가 호텔 방에서  
누군가가 전하께 전합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을!

이제 당신은 이 왕국의 주인이시니  
우리의 길이 다시 교차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래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의 마음  
조금도 변치 않았음을!  
당신은 이 행성에서 가장 특별한 왕자님!  
탁월한 군주이신 당신을 위해 기원합니다.  
늘 기쁨만이 있으시길! 그리고 행복하시길  
인생의 모든 것이 여의하시길.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천국이 늘 자비를 베푸시길 ♥



## 런던

영어 원시 London

런던은 대도시  
쉽사리 외로움을 느끼는 곳.  
특히 사랑해선 안 될  
특별한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면.

잊어버리라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산 너머 산이로구나!  
내 가슴속 구석구석  
수천 년의 깊은 애정 새겨져 있거늘!  
윤회라는 게 없다면  
이리 매인 느낌은 어찌된 일일까?


이 피로움,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은 말이 없는데.

친애하는 나의 자아여  
왜 이제 와서 상황이 달라진 것일까.  
우리 둘 사이에  
아직도 기회란 게 있는 것일까?  
왜 이리도 불안한 것일까!

달이 빛나고  
별은 반짝이고  
산들바람 한없이 살랑일 때  
코트다쥐르 바다는 푸르기만 하구나.

하루를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라.  
천국은 언제나 완벽하거늘  
나의 천국은 어째서  
부족함이 있는 것일까?





온화한 음성  
부드러운 입술  
-마음 설레게 하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눈동자  
시선을 끄는 제왕의 풍모,  
나를 끝없는 행복에 젖게 하고  
내 가슴을 질주케 하는구나  
저 하늘 높이!

오! 어찌해야 하나?  
누가 날 왕자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 줄까?  
나는 잊힌 채 죽을지도 모르지.  
내 깊은 사랑은 묻히고, 부서지고, 버려지리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천국도 압도될 만큼  
나 그대에게 드릴 게 너무나 많은데!

나는 굳게 믿노라  
우리 함께라면 진짜 바뀌리란 걸  
우리 삶과 세상이.

하지만 어떻게 이 말을 그에게 전할까  
너무 허풍처럼 들리지 않고  
여성스러운 선을 넘지 않으면서?

아직도 난 그날을 열망하노라  
우리 가슴 하나 되어 고통칠 날을.  
우리의 영원한 재회  
은 세상이 기뻐할 날을.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 올리니  
부디 이 소원 이루어 주소서.



## 옛사랑

영어 원시 Old Lover

기나긴 밤  
칠혹 같은 바다  
저 멀리 몇 척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만 반짝이는데  
내 가슴에서  
무언가 아른아른 빛나고 있네.  
다른 꿈이길 거부하는  
꿈 하나가.

난 바다에서 살기로 했는데  
하지만 궁전은 바라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생각날까  
두려운 마음에.  
내 존재 가득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내 가슴에선 너무 멀리 있는 그 사람이!

하늘이 이슬비를 내리는가  
아니면 내 눈물이런가?

런던에 오래 머물진 못하겠구나  
여기서는 그리울 테니.  
오, 고대의 성채  
떠나지도 못하겠구나  
그이가 너무나 그리울 테니…….

오, 옛사랑이여  
적어도 여기 있으면  
같은 공기 안에서 숨쉬고  
우리 어찌면 우연히라도  
만날 수 있을지 몰라!

사람들은 음식으로 살고, 그런 것도 같지만  
난? 꿈으로 살아간다네!

시간은 항상 줄달음치고 있다……  
어딘가로  
절망만 남겨 둔 채!

그 부드러운 두 손 잡을 수만 있다면  
잠시라도  
매력적인 푸른 두 눈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텐데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을 텐데  
조금의 후회도 슬픔도 없이.

하지만 물론 사는 게 더 좋으리라  
영원토록 행복하게  
오랜 생을 함께한 연인과 함께.



## 향기로운 길

영어 원시 The Fragrant Path

호텔에서  
아름다운 공원을 지나  
비스트로 드 파리까지  
걷는 길  
'향기로운 길'이라 나는 불러요.  
언제나 꽃이 있고  
향기 넘쳐나기에.

여기 있어 줘서 고마워요.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이곳에는  
가장 멋진 왕자님이 살고 계시지요!  
이 근사한 왕국은 그분만큼이나 낭만적이에요.  
당신은 동화를 믿게 될 거예요  
진짜 존재하니까.  
이곳에선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바람결에서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끌려 오는 건……  
사랑 때문이지요.

뭘, 뒷걸음치는 한 사람만 뵈다면요.  
난 그저 너무 수줍은 마음에  
왕궁에 갈 수가 없었어요.

맨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수천 대의 카메라가  
내 뒤를 따라다니며 찰카거렸어요.  
'눈에 안 띄게' 방문했는데도 그 정도로  
몇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세상에나!  
멋쟁이 왕자님이  
그 다음날  
우리를 왕궁으로 초대했을 때  
그분은 나의 '진퇴양난'의 심정을 몰랐어요.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 말했지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



몇 년이 지나  
좀더 성숙해졌어요.  
난 지난날의 실수를 후회하며  
그분이 다시 한 번  
초대해 주길 바랐어요.  
그럼 죽는 한이 있어도 갈 텐데.

그럼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용서하세요, 그때는 너무 수줍었는걸요!  
이 세상에 그보다 가치 있는 일도 없는데,  
그보다 나은 삶의 목적도 없는데…….

내가 잘 몰랐을 뿐이에요.  
진정한 사랑에 익숙하지도 않았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는 아니까.  
손가락 사이로 흘러버릴 수 없다는 것을.

내일이 없는 것 같고  
전생이 없었던 것 같고  
우리 서로 만난 적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완전히 남남인 것만 같아요!

한번 연인은  
영원한 연인.  
그 이상이지요, 우리는 많은 생을 살았으니까  
둘이서…….

오, 내 사랑!  
난 아무 바람도 없지만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언젠가 우리 다시 함께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것.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말해 주세요, 나의 태양  
나의 왕자님  
이 꿈이  
너무 지나친가요?



## 당신과 왕국

영어 원시 You and the Kingdom

그냥 아름다운 왕국이 아니라네  
여기는 내 사랑하는 이가 있는 곳.  
이 궁국(宮國)이 아무리 매혹적이라도  
당신 없으면 내 마음은 여기 있지 않으리니!

아! 찢나는 모습  
내 생각 구석구석 환히 밝히면서도  
내 마음 안절부절못하게 하는구나.  
아무런 이유도 없고  
설명도 할 수 없고

당신의 미소짓는 모습 때문이려나,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성  
아니면 파스한 푸른 눈빛 때문이려나.....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아는 건 그저  
저상에서 당신이 가장 품위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뿐!

어디서나 당신이 보이니  
잊기가 어려워라.  
당신 사진에 대고 인사하고  
창밖으로  
키스를 날리네.

안녕, 안녕하세요! 내 사랑  
나 여기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나 여기 있어요, 아주 가까이.  
당신 때문에 나 여기 있어요,  
너무나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어떤 비밀의 마법사가  
마법의 지팡이 흔들어  
우리의 길을 길러놓았네.  
당신은 장엄한 황궁으로 보내지고  
나는 어딘가에 외로이 남겨지고.....

하지만 그조차 지을 수 없으리  
한때 그토록 강렬했던 그 감정을!  
우리 기다리리라.  
언젠가 마법의 약 기운이 다하고  
사랑의 힘이 가득하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그 얼굴  
사랑스러운 그 오라  
더 이상 아득하지 않으리라.....

동화는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법.



## 애도의 글

영어 원시 Condolence Note

이 지구의 왕을 상상해 보라.  
최고의 여(女) 사제,  
지상에서 가장 막강한 존재,  
손짓 하나로  
모든 것을 가지는 이……  
이제 막 부모를 여윈 이를.  
그는 고아  
이 세상의  
모든 불쌍한 사람이 그렇듯이!

그 누구도 진정 이해하지 못하리  
그의 고독, 그 아픔을!  
그 어떤 값진 선물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쓸쓸한 마음엔…….

오, 나의 왕이시여!  
우리 모두 슬픔에 차 애도하나니  
신조차 속수무책으로  
시름에 (깊이) 잠겨 있네  
고통을 가둔 채!  
당신의 여린 마음속에서!

모든 애도의 말도 무의미하고  
그 어떤 포옹도 헛되고 부질없나니!

♪

울여름 어느 토요일 밤  
'무명씨' 한 사람  
지미네 집 '건너편'에 앉아  
스쳐가는 세상을 바라보니  
바쁘고 또 바쁘기만 하구나!!!

왕자님도 없는데 (이상한 일)  
백성들이 어찌 잔치를 벌인단 말인가?!!!





사진: 시인



4부

특별한 이들에게





참이이 무상사의 그림 '찬란한 적멸 인사'  
2008년 8월, 프랑스 광릉

참이이 무상사  
2008년 8월 8일  
프랑스 성 마틴 센터







## 황금 연꽃

(티 판 작 대선사를 기리며)  
아름답게 원시 Đóa Sen Vàng

황금 연꽃이 색상을 버렸네,  
속세에 대한 집착, 그리 가진 격도 없었지!  
아직 삼계에 남은 아들은 슬픔에 가득 차 있는데  
오, 황금 연꽃이여,  
어찌하여 그리 빨리 작별을 고하셨는가?

청하이 무상사  
2006년 12월 15일

텍 판 작 대선사(Thích Mãn Giác, 1929-2006): 아름다운 선시이자 시인. 높이 평가받는 학자이자 교육자. 불법(佛法)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외로운 나그네', '후연 풍의 시', '자유로운 흰 구름' 등의 시집을 통해 아름다운 시와 노래 세계에 귀한 보물을 남겼다.





## 사요나라

(틱 만 작 대선사를 기리며)  
어울락어 원시 Sayonara

거룩한 성인이 천국으로 돌아가셨네.  
꽃이 만발한 숲도 가을바람 속에 애도했노라.  
그대 '깃털처럼 가볍게' 떠났으리라  
온갖 형상과 환영으로 가득 찬 세상을 남겨 두고.

그대의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회상하노라면  
어찌 그대 다른 땅으로 갈 수 있는가, 태평하게도.  
독경 소리 아직도 향기롭게 속속이 배여 있는데  
바람결에 떨리던 노란 가사(袈裟), 이제는 보이지 않네!

이제 그대 떠나니 꽃들도 색조를 바꾸고  
오래된 사원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머리 숙이네.  
그대는 진아(眞我)와 하나 되어 떠났고  
우담바라\*처럼 귀한 세계, 나 없는 마음에서 화현했네.

2006년 12월 16일

\* 우담바라: 3천 년 만에 한 번 핀다는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꽃.



## 문득 호앙 겐을 위해 쓴 글

어울락어 원시 Xuât Bút Cho Hoàng Cầm

인생에 **황금빛\*** 노을이 물들 무렵, 그대 고향으로 돌아간다.  
백학(白鶴) 같은 시의 색조, 수정 같은 머리칼.  
세상만사 지나긴 꿈속의 한순간인 듯\*,  
맑은 구름 속에 돌아가는 길 향기로워라.

우즈(無字)-2010년 5월 7일

\* 저명한 작곡가 고(故) 호앙 겐의 이름을 딴 표현.

**호앙 겐**(Hoàng Cầm, 1922-2010): 켄박(Kinh Bắc) 출신의 시인, 본명은 부이 땅 비엣(Bùi Tăng Việt). "사랑하기 위해 살고, 쓰는 것을 사랑했던"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호앙 겐 시인은 어울락 시와 음악계에 위대한 영적 유산을 남겼다. 그의 작품으로는 '환상의 이따리', '두웅 강의 건너편', '북쪽 수도를 향해', '선달 그믐날의 단상'과 같은 걸출한 시와 '끼에우 로안', '남편의 원한' 등의 시극이 있다.





## 투 호에게

어울락어 원시 V8 Thu H6

오래된 영혼들 영면에 들고  
금빛 가을\* 이파리는 흩어진다.....  
바람 타고 날아오른 학  
허공에서 고요히 날개를 펴고  
'이별의 슬픔'\*\* 노래하니  
호수\*가의 풀들도 슬퍼하노라.

양단(祥觀)처럼 우아한 그대 마음  
우단처럼 보드레한 그대 영혼  
가락은 귀한 시냇물 같고  
음악은 천상의 비 같아라!

온 세상 이제 고요하니  
가을\*은 저 멀리 호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몇 가락 울려 퍼져  
저 멀리 지평선 끝을 맴도는구나!

우즈(無子)-2000년 5월 19일

\* 저명한 작곡가 고(故) 투 호의 이름을 딴 표현.

\*\* 투 호가 작곡한 노래 제목.

투 호(Thu H6, 1919-2000): 본명은 호 투(H6 Thu), 재능 많은 연극배우이자 시인, 음악인으로 어울락 현대음악에 크게 기여했다. 50년에 걸친 예술 인생에서 음악가 투 호는 '조국', '진원의 저녁 피리 소리', '서로를 그리며', '이별의 슬픔', '저녁 숲' 등 200편이 넘는 감동적인 노래를 예술 유산으로 남겼다.



## 레 우옌 프엉을 위해

어울락어 원시 Gôi Lê Uyên Phương

당신은 다른 왕국\*으로,  
영원한 평화의 정\*토로 길을 떠났네  
'늘'\*\*을 버린 연꽃처럼  
구름을 벗어나는 달처럼.  
당신의 상냥한 모습 떠올리니  
'슬픈 날'\*\*, 그리운 마음을 채우네…….

이 인간 세상은 한바탕 환상의 꿈  
아침 이슬, 저녁 비와 같은 것.  
인과응보의 해안에서  
배 한 척 닻을 올리고  
나그네, 어딘가 다른 세상으로 떠나니  
홀로 남은 노 하나, 깊은 몽상에 잠기네!

우즈(無子)-1999년

\* 저명한 가수 겸 작곡가 고(故) 레 우옌 프엉의 이름을 딴 표현.

\*\* 레 우옌 프엉의 노래말.

레 우옌 프엉(Lê Uyên Phương, 1941-1999):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어울락의 음악인. 재능 있는 유명 가수 레 우옌(Lê Uyên)과 의기투합해 함께 작업했다. 그가 세상에 남긴 불후의 사랑 노래로는 '우리의 슬픔', '당신에게 바치는 사랑 노래', '이 슬픔은 언제까지?' 등이 있다.



## 타이 항을 기리며

어울락어 원시 Gôi Thái Hằng

서로의 마음 이해하니  
말 못 한 슬픔만 소리 없이 남아 있네!  
당신은 위대한 공(功)으로 돌아가고  
난 우울한 무덤가에 있네.  
우리 마음, 태산\*조차 갈라놓지 못하고  
우리 사랑, 영원\*하리라, 시간의 자취 넘어.....

우즈(無子)-1999년 8월 14일

\* 어울락(베트남)의 명가수 고(故) 타이 항의 이름을  
만 표현.

타이 항(Thái Hằng, 1927-1999): 저명한 가수. 천 년 문명의 땅 하타인(Hà Thành) 지역이 낳은 아름다운 딸. 본명은 팜 티 광 타이(Phạm Thị Quang Thái),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고 음악가 팜 주이의 사랑하는 아내였다. 타이 항의 목소리와 그 위대한 이름은 탕 롱 합창단과 팜 주이의 멋진 음악으로 이어진다. 오늘날까지 어울락 음악계에서는 '천상의 피리 소리', '조국을 그리는 마음', '사랑가' 등 불멸의 노래에 담긴 매끄럽고 유려한 그녀의 목소리를 추억한다.

팜 주이(Phạm Duy, 1921-): 본명은 팜 주이 겐(Phạm Duy Cận), 어울락 현대음악의 '거목'으로 여겨지며, 사랑과 민속, 영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음악 장르의 수많은 곡을 작곡했다. 그중 '사랑가', '어머니 조국', '굴 길'과 최신 작품인 '끼에우 이야기 도해'와 같은 불후의 명곡은 어울락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아로 새겨져 있다. 그의 전설적인 명곡은 타이 항과 타이 타인(Thái Thanh), 레 투(Lê Thu) 등 시대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목소리로 날개를 달아 어울락 음악계에 높이 솟아올랐다.

## 팜 주이에게

어울락어 원시 Cho Phạm Duy

이제 한 사람\* 홀로 세상에 남겨진 채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헤아린다.  
장밋빛 시절은 결코 돌아오지 않으니  
영원토록\*\* 단 한 사람만을 그리워하리!

\* 어울락(베트남)의 재능 있는 작곡가 팜 주이의  
이름을 만 표현.

\*\* 어울락(베트남)의 명가수 고(故) 타이 항의 이  
름을 만 표현.



## 조용한 영웅

(모든 훌륭한 경찰에게)  
영어 원시 The Quiet Hero

얼어붙을 것 같은 세찬 겨울바람 속에서도  
당신은 거대한 그리스 조각상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대양의 폭풍도 당신 앞에선 방향을 바꿀 거예요  
그 불굴의 용기에 경외심을 품고!  
여름 한낮 이글거리는 더위 속에서도  
당신의 위엄 있는 미소에 불평은 흩어지고  
저 높은 태양도 당신의 인내심에 도망칠 겁니다.  
혼잡한 교통 체증 속에서  
당신은 확신에 찬 팔 동작으로 질서를 회복시키되  
한 마디 감사의 말도 기대치 않습니다.

변잡한 도로에서 속도 줄이는 것을 잊으면  
당신은 다시 안전 속도로 달려라고 나무라고  
한밤중에 열쇠 없이 문이 잠겼을 때도  
당신은 만능열쇠 들고 "집에 오신 걸 환영한다"며 미소짓습니다!  
긴장되는 고속도로에서 길을 잃어도  
당신은 정확한 지점까지 인도해 줍니다.  
심지어 나의 모국어로 말하기까지 하지요.  
예! 시도는 했지요.....

나쁜 사람에겐 강하고  
순한 사람에겐 부드럽습니다.  
인간 성격의 부정적인 면을  
무수히 다루면서도  
놀랍게도,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신뢰로 가득합니다.  
수만 가지 방식으로  
꾸밈없는 선량한 품성을 보여 주지요!

난 기억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날 안아서 도로가에 내려 주었고  
(내가 두 번째로 오토바이에 도전해서 실패했을 때)  
의료진에게 외쳤습니다.  
"조치 좀 취해 봐요, 어떻게 좀 해봐요!  
그녀가 괜찮을까요?  
그녀가 괜찮을까요?"

당신 얼굴은  
걱정하는 아버지와 같았고  
당신의 오라는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 얼굴 언제까지나 기억할 거예요  
남은 생애 내내.



아, 그래요, 난 당신을 잘 압니다.  
외국의 낯선 도시,  
나의 고향 마을,  
좁고 어둡고 무서운 뒷골목,  
새벽녘의 광명한 해변에서……  
당신은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아니면 신과 함께였을 뿐이지요!

당신은 날마다 가장 용감한 군인이 되어  
폭력과 불의에 맞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약자를 구하며  
부고한 이들의 방패가 되어 줍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채  
안전과 평화를 보호합니다  
자국민을 위해,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낯선 이를 위해.  
'일게 여행자인……' 나 같은 사람까지요!

그러나 당신에게 감동받아 이 시를 쓰는  
나 또한 민중이긴 합니다.  
크리스마스이기에  
이 소박한 선물을 드립니다.  
답례로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리본을 두르고  
사람으로 포장하고, 당신이 받아 마땅한 존경으로 봉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이  
이제는 어둠과 싸우는 일이 끝났구나! 싶을 때

어제 썼든 이 편지를 기억하게 되면  
민중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사회는 여전히 문제들을 낳고,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갖가지 방법으로 고쳐 보려 합니다…….

이 특별한 명절에  
될 보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기…… 경찰에게는요)  
그래서 그저 멋진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해가 지무는 이때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새로이 시작하길  
우리 나날에 유쾌한 일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쁜 것들'은 모두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때조차  
주변에서 경찰을 본다면 언제나 반가울 겁니다  
보호를 상징하는 계복 차림의  
당당하게 걷고, 멋지고, 금지에 차서 말하는 모습을 본다면,  
강하면서도 공경하고, 겸손하되 두려움을 모르는  
당신은 조용한 영웅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CDLA♥


~~~~♥~~~~

(\*) 모니코 거리에서 만난 경찰의 말을 인용.










청아씨 무상사  
2009년 11월 22일  
프랑스 로크브뤼즈



## 깨어나세요!

어울락어 원시 Hây Bùng Tinh!

오, 세상이여, 깨어나 바라보세요

요동치는 강과 산들을

불타 버린 숲, 깎여 나간 언덕, 말라붙은 개울들을.

모든 꿈이 끝나면 기여운 영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오, 위대한 대지여, 괴로움을 더소서  
이 눈물들이 끝없는 밤을 따라 찾아들도록.  
오, 바다와 호수여, 그 선을 멈추지 말고  
인류에게 내일의 희망을 허락하소서…….

오, 중생들이여, 저 너머 세계에서 잠시 안식을 취하소서  
마지막 말 한 마디 못 한 채 떠나긴 했어도,  
인류가 늦기 전에 참회하길 기다리는  
내 가슴의 두근거림이 가라앉게 하소서.

오, 울창한 숲들이여, 그대 참된 본질을 보존하고  
인간이 과오를 범할 때 그들을 보호하소서.  
나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수천 방울의 눈물을 받아  
그대의 장엄한 나무와 잎새, 뿌리를 키워 내소서.

오, 마음이어, 흐느낌을 멈추소서  
기나긴 밤 내 영혼이 쉴 수 있도록.  
눈물은 말라 버리고 할 말도 잊은 채  
고통 받는 존재들에 가슴 아파 눈물짓나니!

오, 밤이어, 그대 빛의 근원에 불을 지퍼  
어둠 속 인간의 영혼에게 길을 밝혀 주소서.  
내 마음 진정되도록 평온해지소서  
불가사의한 천상의 선율을 타고 공중의 경지에 들도록.

오, 낮이어, 갑작스런 불안을 일으키지 마소서  
우리 마음 깊숙이 평화가 자리잡도록  
인류의 분쟁이 가라앉도록  
진아(眞我)가 찬란하게 빛나도록.

오, 내 마음이어, 더 이상 탄식하지 말아요  
싸늘한 겨울에 벼동대는 곤충처럼.  
완벽한 내일을 가만히 기다려요  
세상이 천국의 후광으로 빛날 그날을.

오, 울고 간청하고 애원하니  
오, 무수히 많은 부처들이여, 신들이여, 천사들이시여,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영혼들을 구해 주소서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스런 지옥의 굴레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오, 형제여, 당장 깨어나세요.  
당당하게 바다와 강 위를 거닐고  
타오르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며 맹세하세요  
지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희생하겠노라고!

오, 자매여, 지금 바로 깨어나세요.  
황량한 폐허에서 일어나세요.  
다 같이 우리 지구를 새롭게 만들어요  
모두가 하나 됨의 노래를 즐기며 부를 수 있도록.



인조모피를 입으신 참하이 무상사  
2008년 11월 17일  
프랑스 로크브렌느



## 하지 마세요!

어울리어 원시 Hăy Dừng Lại!

가지 말아요! 늙은 어머니와 천진한 형제들을 남겨 두고,  
우리 인간 사이에 진정한 미움이란 없어요.  
전장에는 총과 칼, 적개심뿐이지만  
여기 따뜻한 집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가지 말아요!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가하러.  
진정한 원한이란 없어요, 권력에 대한 목마름일 뿐.  
제국을 확장하고자 무수한 목숨이 스러졌지만  
여기는 사랑과 평화, 안전만 가득합니다.

가지 말아요! 인자한 아버지와 효성스런 자녀를 버리고,  
진정한 증오란 없어요, 속임수일 뿐!  
몇 사람의 만족을 위해 온 나라가 파괴됐지만  
여기선 태평한 연들이 유유히 하늘을 떠다닙니다.

그 길로 더 나아가지 말아요  
복수심에 찬 혼령과 비명 지르는 악마의 길로.  
병사의 목숨은 이국땅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영혼은 어두운 세상 흙바람에 사라졌습니다!


오, 내 사랑, 걸음을 멈춰요!  
사랑하는 아내의 두 손을 잡아요.  
가족과 조국, 세계를 생각 좀 해주세요.  
어찌하여 죽음과 불행의 씨앗을 뿌리려 하나요?

그 손을 멈추세요, 제발 그래 주세요.  
김을 휘두르며 유혈 낭자한 맹세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적'을 다시 한 번 바라보세요.  
그들도 같은 인간이 아니던가요?!

내 곁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혀요.  
차가운 산, 외로운 언덕에서 수천 생을 방황하는  
길 잃은 영혼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울부짖는 비바람 속에 가슴을 에는 그들의 울음소리가  
지난밤 전쟁에서 지은 업장의 빛을 한탄하고 있으니!

우리가 죽든가 그들이 죽든가  
인생의 절정에서 약동하는 미래가 갑자기 꺼져 버리고  
모든 애정, 가족과 친구들 모두  
한 땀한 마음으로 쓰디쓴 피의 연못 악취 속에 사라졌어요!






생명력 넘치던 인간의 모습  
하늘을 찌를 듯한 열망 품은 청춘의 꿈들  
돌진하는 순간 뜨거운 핏물결 속에 씻겨 나가고  
시린 바람만 살육의 전장에서 누런 흙먼지 일으킵니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생명을 존중해요  
이웃과 친척, 부모님이 곁에 있을 터이니.  
기름기 흐르는 쌀과 물기 많은 감자, 낭만적인 강과 꿈같은 바다  
당신과 나를 위해 꽃밭으로 장식된 기나긴 강둑!

과거에도 현재에도 수많은 남녀 영웅이  
살육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고  
갈을 아득한 옛적의 불가사의한 진리로 바꿨습니다.

생명을 빼앗으면 우리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법.  
죽음과 이별을 야기해 놓고 어찌 기뻐할 수 있나요?  
오직 무한하고 영원한 자비만  
우리를 만물 중 위대한 존재로 만들 것이니…….



청야이 무상사  
2009년 11월  
프랑스 로크브렌느



## 불상(佛像)에게 하는 말

(칭하이 무상사가 90대 후반에 지은 시)  
어울락이 원시 N& V& But

오, 부처님,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이 사바세계는 고통으로 가득하니!  
마음은 폭풍우 치는 숲  
우리 눈물은 요동치는 바다!

오, 부처님, 우리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요  
우리 어찌하여 이쪽 해안이 남아 있나요  
파란만장한 이 속세에,  
고뇌로 애달파하지 마세요, 거룩한 성자님.

날이면 날마다, 비가 오나 해가 비치나  
종생은 시련의 수렁에 빠져 있을 뿐!  
기쁨과 슬픔은 함께 다가오니  
누구는 울고 누구는 보살피지요!

자애로운 부처님, 이제는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은 손에 풀리고  
태양이 떠올랐나 하면 이내 밤이 찾아드니,  
사랑하는 부처님, 더 이상 낙담하지 마세요.

오, 부처님, 우리 함께 떠나요  
이 관상의 땅에 작별을 고해요.  
인간들은 아직도 연연하며  
영원히 이 고통의 세계로 돌아올 테니.....



##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

영어 원시 Talking to a Stone Buddha

여보세요, 부처님, 왜 우시나요?  
그 돌 가슴에 바라는 거라도 있나요?  
세상이 고통 받아서?  
아니면 중생들의 아픔 때문에?


오, 친애하는 부처님, 왜 우시나요?  
당신 가슴속엔 아무 갈망도 보이지 않는데!  
당신 눈물, 바다로 흘러내려 가  
산호초에게 사랑을 전하는군요!

오, 부처님!  
어찌하여 당신은  
열반을 떠나오셨나요?  
오, 부처님  
여기 뭐 볼 게 있나요  
인간들 아니면  
그림자 인생의 드라마  
슬픈 인생의 드라마?

오, 부처님  
오, 부처님  
오, 부처님  
오, 부처님  
열반을 떠나오셔야만 했나요?

여보세요, 부처님, 아직도 눈물이 나오나요?  
당신의 돌 가슴이  
세월 따라 녹아 버렸나요?  
당신의 눈물, 강물로 흘러들어 가  
모래 같은 세상에 그 사랑을 흩뿌리는군요!





##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

(칭하이 무상사가 30대 후반에 지은 시)  
어울락이 원시 Không Dâu Em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 우리도 한때 다정했지요.  
날아가는 새들의 자취, 자줏빛 구름 너머 희미해져도  
성령은 여전히 거룩한 빛으로 생생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 우린 지상의 종족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 우린 장엄한 왕궁에서 왔어요.  
이 미궁 속에서 끊임없이 길을 잃어  
변화무쌍한 삶에 빠지고, 천국이 멀어졌을 뿐.

찾아봐요, 내 사랑, 쉬 잡히지 않는 올림 속에서.  
귀 기울여 봐요, 내 사랑, 깊고 깊은 차원에.  
마음으로 그려 봐요, 내 사랑, 완전한 공(空)의 길을.  
참나 안에서는 신의 은총 가득한 힘으로 눈부시게 빛나리니…….

낙원에 있는 우리 옛집으로 돌아갈까요?  
천국의 빛에 인도되어 가 볼까요  
신성한 선을 흘려넘치는 위엄 있는 거처로?  
고귀한 천상의 왕좌, 환영의 햇불 밝혀 주리니.

기쁨에 겨운 화음으로 천사들 합창하는 날  
우주가 기뻐하는 날은  
고귀한 천상의 왕좌로 돌아온 우리, 환영받는 날!



## 서로 사랑해요!

(칭하이 무상사가 20대 후반에 지은 시)  
어을락어 원시 Thuong Nhau Di

이 아름다운 시는 오스카상을 두 차례 수상한 작곡가 엘 카사(Al Kasha)가 곡을 붙이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개국 4주년 기념 음악회 '평화를 선물하자'에서 레아 알리스(Leah Allers)와 토니상 후보이자 에미상을 수상한 리즈 콜러웨이(Liz Callaway), 그래미상 후보로 지명된 카쉬프(Kashif), 그래미상을 수상한 멜리사 맨체스터(Melissa Manchester), 토니상을 수상한 멜바 무어(Melba Moore), 토니상을 수상한 캐런 짐바(Karen Ziemba)가 불러 소개되었다.

당신과 나, 꼭 같은 삶  
서로 포옹하며 모든 기쁨 함께 나눕니다.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고락(苦樂)의 바다를 함께 헤쳐 나가요.

형제여, 내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우리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는다면  
내일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우리  
둘 다 망설여질 거예요, 그 작별의 시간이.

알고 지내지 못한 걸 후회하고  
인사말 건네지 못한 걸 후회하고  
누이의 아름다운 정원  
담 높이 쌓고 문 걸어잠근 걸 후회할 거예요.


당신이 시들어 떠나가면  
남은 발자국, 먼지로 뒤덮이고  
나는 홀로 도시로 나가겠지요  
당신 없이 희미해지는 삶을 바라보며!

우리 서로 사랑해요.  
봄은 꽃들을 보내 주고  
나무는 초록빛 선물 맺어 주니  
오, 경이로운 행성이여!

밤하늘 별 반짝이고  
하루를 여는 첫 빛 눈부시니  
동틀 녘 새들은 합창하고  
메미들은 여름이 왔음을 반기는군요.

드넓은 바다와 강  
레몬향 가득한 꽃들로 수놓아진 숲  
수정 같은 푸르른 하늘  
대지는 사방으로 펼쳐져 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해요.  
시원하고 상쾌한 우기(雨期)  
감로수처럼 달콤한 강물은  
인류 간의 사랑을 키워 내지요.

삶은 나날이 더 활기 넘쳐요  
사랑이 완벽하고 완전하기에.  
지구와 천국의 사랑  
인간들의 사랑.

우리 서로를 위해 살아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요.  
지상낙원을 건설해요.  
서로에게 평화를 선물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고통 그치고  
그러면 사랑이 세상을 밝히고  
곳곳에서 천사들이 춤을 추리라.  
천국과 인류에 영광 있기를!

내 내면의 천국  
이 나라에 바치겠어요……!



인조모피를 입으신 창아이 무상사  
2009년 10월 3일  
프랑스 성 마틴 센터





사진: 시인



## 이상적인 연인


(칭하이 무상사가 20대 후반에 지은 시)  
어울락어 원시 Người Yêu Lý Tường

아침이면 동트는 새벽 맞이하고  
저녁이면 떠나는 태양에 작별을 고한다.  
하루 종일, 나의 뜰엔 꽃향기 진동하고  
긴 밤 내내, 창공에선 별들이 반짝반짝!

아, 즐거워라, 삶이 눈부시게 빛나고  
정다운 사람들 여기저기에 있으니,  
앞세마다 생명의 맥박 새삼스럽고  
상냥한 인사에 미소 짓는 입술 더욱 곱구나.







이제 그대 오시네, 봄날을 두 눈에 담고,  
여름의 날개, 그대 고운 머릿결에 감돌고  
우아한 걸음걸이, 살며시 가을과 돌아오고  
우단 같은 손길, 겨울 태양을 녹인다.

그대는 삶에 기쁨 주러 오신 이  
매혹적인 미소에 달빛도 더욱 환해지네.  
섬세한 발걸음 아래, 시원한 시냇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어둠한 대지, 기적들로 생생해진다!

오, 사랑아, 그대는 용솨음치는 아침  
땅거미 지는 찬란한 황혼  
자장가로 소박한 꿈 어르는 가을 산들바람  
우리 함께하던 날의 기쁨에 찬 노랫가락.

그대의 존재로 영원토록 고요하고  
그대 오실 때 산과 강이 어울려 즐거이 합창하네!  
사랑 어린 눈길, 에메랄드빛 물처럼 반짝이고  
장밋빛 입술, 이 지친 삶의 흥조로구나!

오, 여름비, 봄날의 해오름  
황금빛 햇살, 선홍빛 구름, 푸른 하늘의 연인이여,  
그대 오시어 이 꿈의 세계 고양시키니  
자비의 선율, 온 대지를 찬미하노라.

영원한 사랑의 왕국으로 즐거이 걸어가는  
그대 고아한 발걸음 앞에, 내 마음 무릎 꿇는다.

그대 여기에 오시어 얼어붙은 눈의 계절 테우니  
대기는 향기롭고 산은 울창하며 강은 광활하여라.  
내 마음 기쁨에 차고, 온 인류 젊음을 되찾아  
이상적인 연인을 반갑게 포용하노라.



## 당신이 사랑한다 말했다 때

영어 원시 When You Said You Love Me

이 아름다운 시는 오스카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빌 콘티 (Bill Conti)가 곡을 붙이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개국 4주년 기념 음악회 '평화를 선물하자'에서 토니상을 수상한 가수 캐런 켈바(Karen Ziemba)가 불러 소개되었다.

당신이 사랑한다 말했다 때  
모든 슬픔 사라져 버리고  
나는 구름 위로 높이 솟아올라  
백조 되어 산 위를 날아가네, 훨훨, 훨훨.  
당신이 내 손을 꼭 잡아 주었을 때  
내 가슴은 밤새 노래 부르네,  
별들이 다 환히 빛나고  
달은 내 안에서 춤추고 있네.

간직할 수 있을까  
이 마법 같은 순간!  
간직할 수 있을까  
이 마법 같은 순간!  
우리 같 수 있을까  
시간이 멈춰 버린 곳  
사랑이 영원토록 새로운 곳  
우리 감정 결코 끝나지 않을 곳으로?

사랑은 아름다운 노래  
세상이 따라 부르리라  
우리 사랑 영원토록 청춘이라네!

떠날 거라고는 하지 말아요,  
날 외롭게 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나누어요  
결코 퇴색하지 않을 꿈을  
결코, 다시는…….





## 천국의 새

영어 원시 Bird of Paradise

오, 찬란한 천국의 새여!  
그대 어디로 가는가?  
길코 볼지 않는 한 줄기 바람 타고.....  
무지개 너머 아름 없는 곳으로 가는가?

태양 없는 태양을 그대 알고 있구나  
모래 없는 해변에 그대의 발 내려앉으리니,  
그대의 목마름이 그대의 갈증 풀어 주리  
그대의 목마름이 그대의 갈증 풀어 주리  
가장 달콤한 감로수로, 그대 가슴 만족할 때까지.


오, 천국의 새여!  
고향으로 날아가거라! 훨훨!  
펼쳐진 한 쪽의 자줏빛 구름 위로  
그대 날아오르라.....

가뭇다가 베푼 날개  
한없이 부드러운 가슴으로  
현 없이 울리는 하프 선율을 따라  
그대 내려앉으라  
끝없는 시간의 땅에서  
영원히 고요한 강물에 몸을 적시고  
영원한 젊음의 뿔판에서 뛰놀며  
음악 같은 신의 음성 들으라.

오, 천국의 새여!  
그대 가장 사랑받는 이를 알고 있구나,  
그대 자비로운 그분을 알고 있구나.

권능을 부여받은 그대 날개 위에 나를 태워 다오  
나도 가야만 하니까,  
고향으로 가야만 하네.....  
나는 고향으로 가야만 하네.....  
떠나던 포근한 고향으로!  
내 고향, 천상의 고향으로!





## 태양을 위한 노래

영어 원시 Song 4 the Sun

광활한 창공의  
찬란한 보석이여!  
나, 그대의 힘을 느끼고  
크나큰 경외감에 사로잡히네!

그대의 눈길에  
아침 이슬 터지고,  
세상이 환해지고  
지구엔 온기가 도네!  
그대가 당도하니  
모든 것이 영광되도다.

나, 크나큰 축복을 느끼네  
그대 여기 있기에.  
친구가 되어 줘서 감사하네  
웃음 짓던 시절에  
눈물짓던 시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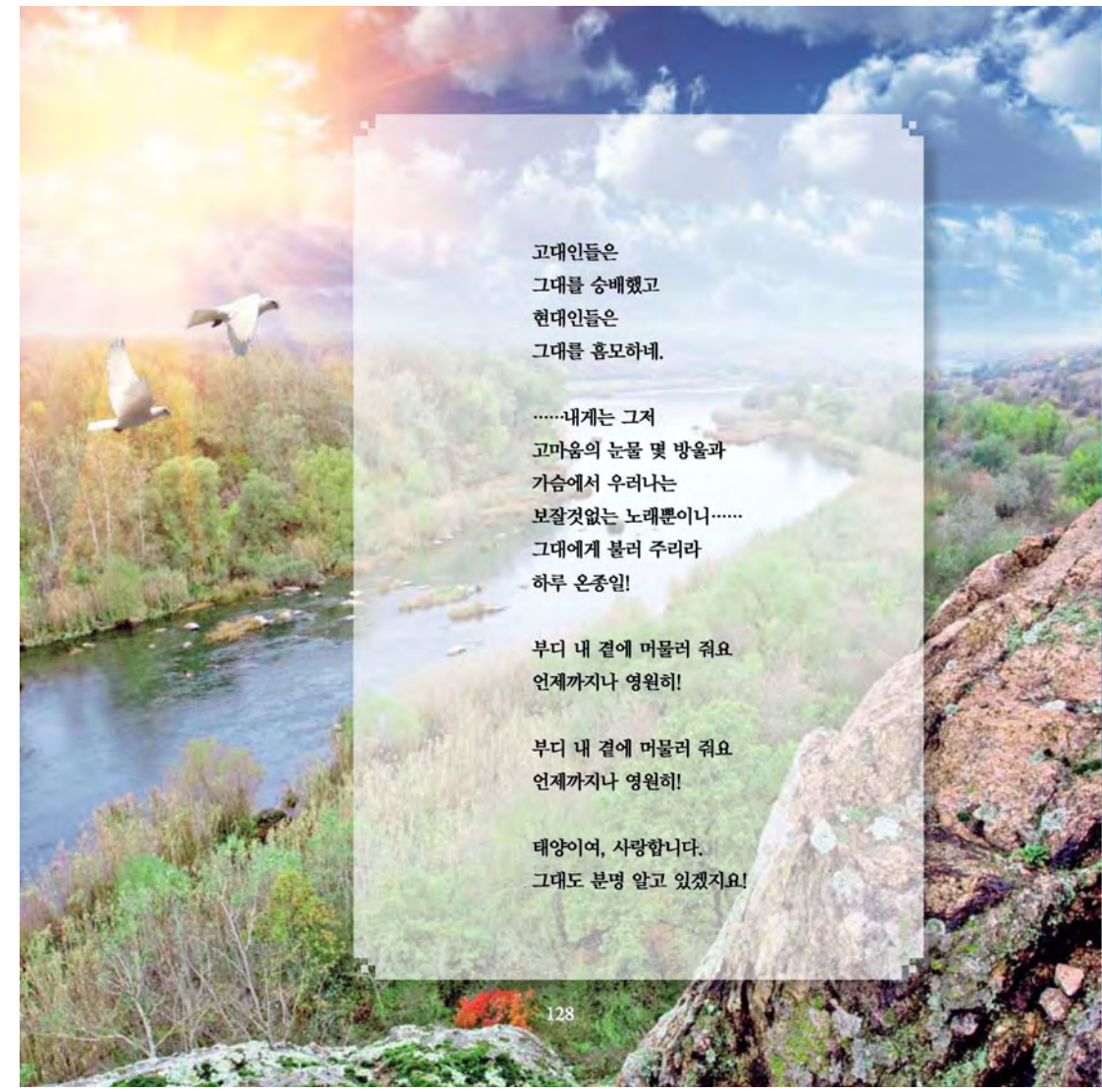
126

이 물질계에서  
그대는 최고의 존재.  
온기와 자양분,  
행복과 즐거움을 주네!  
무수한 중생에게  
위로를 주는 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  
그대의 사랑과 축복을!

그대 향한 이 고마움을  
무슨 말로 표현할까.  
그대의 위대함 앞에  
말이란 공허한 것.  
그대의 영광 앞에  
말이란 공허한 것!  
신께선 분명 아셨으리라  
내겐 그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네  
그대 없는 세상이라니!

127






고대인들은  
그대를 숭배했고  
현대인들은  
그대를 흠모하네.

.....내게는 그저  
고마움의 눈물 몇 방울과  
가슴에서 우러나는  
보잘것없는 노래뿐이니.....  
그대에게 불러 주리라  
하루 온종일!

부디 내 곁에 머물러 줘요  
언제까지나 영원히!


부디 내 곁에 머물러 줘요  
언제까지나 영원히!

태양이여, 사랑합니다.  
그대도 분명 알고 있겠지요!



청아이 무상사  
2009년 12월 11일  
프랑스 성 마틴 센터





## 나의 달님

영어 원시 Moon of Mine

오, 나의 달님  
그대의 미소 너무나도 달콤하여라  
오직 내게만 지어 주시니  
오, 행복하여라!

보는 이 없고  
아는 이도 없는  
서로를 향한 우리 사랑,  
그대가 모두를 돌보긴 하여도!

누구도 미소 짓지 못하리  
그토록 달콤하게 오랫동안.  
그대뿐이네  
오직 그대뿐이네!

시인  
1980년대 초  
이탈리아 라팔로

내가 노래할 때면  
그대 산 위에서  
가만히 멍춘 채 떠 있었지.  
귀 기울이며 춤을 추었지  
내 마음 흡족할 때까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대는  
은하계의 미인.

그대는 나와 함께  
아름도 기쁨도 나눈다네!  
그대는 충실한  
영원한 벗.

어두운 산속에선  
내 앞길 비취 주고  
내가 괴로울 때면  
마음을 달래 주네.

어느 누가  
찾을 수 있을까  
그대보다 아름다운 이를!



나 그대를 기다리네  
달이 이룰 때도  
구름 낀 밤에도  
하늘에서 폭풍우 칠 때도.

그대 내 안에  
있어야만 하네.  
나의 달님 없는 삶  
무슨 의미 있을까?!

세상의 보물 다 준다 해도  
맞바꾸지 않으리  
그대의 반쪽하고도,  
눈부신 미인  
언제까지나 영원히 있어 주길  
드넓은 하늘에서…….

온 세상이 그대를 사랑하고  
나도 그대를 사랑하네.  
최고의 빛이 되어 준  
그대에게 감사하네!

사랑해요, 달님.  
사랑해요, 달님!  
영원히 사랑해요  
나의 달님.



청야이 무상사  
1991년 9월 22일, 포모사 시후  
중추절 경축 행사와 선삼



## 소중한 별님들!

영어 원시 Precious Stars!

별님들, 별님들!  
어찌면 그리도 아름다울까!  
형언할 수 없이  
너무나 귀한 그대들  
이 사바세계 장식하고 있구나!

나 정말, 정말, 정말로  
그대들 찾아가  
노래해 주고 싶네  
아름답고 달콤한 전설을.

창하이 무상사  
2008년 9월 5일  
프랑스 성 마틴 센터

너무나 눈부신 그대들  
너무나 황홀한 그대들.  
신은 어찌하여 그대들을  
그~토록 특별하고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대들의 사랑 느껴지네.  
하늘에서부터  
나의 지구로 퍼져 오는 그 사랑이.

그대들은 증언하네  
모든 즐거움  
모든 영화(榮華)  
모든 격변을.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자애롭고  
영원히 변함없으며  
영원히 주기만 하네!

우리 인간들은  
나약하고 미천하나  
그대들을 사랑하고  
보석보다 소중히 여기네.  
우리는 끝없이 애쓰다네  
그대들에게 다가가고자  
그대들을 만나고자  
그대들을 포용하고자.

오, 우주의  
신성한 보석들이여,  
멀리, 저 멀리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네....., 그렇지?



# 나는

영어 원시 I Am

나는 연단 없는

정지인

나는 유족 없는

왕.

나는 무기 없는

군인

나는 변호 없는

피해자.

나는 대책 없는

전사.

친구와 적.

모두 내 안에 있다네!

연조모피를 일으킨 창하여 수상사  
2008년 11월 8일  
프랑스 로크브렌느





## 신을 찬미할지라

영어 원시 Praised Be the Providence

이 아름다운 시는 오스카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빌 콘티(Bill Conti)가 곡을 붙이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개국 3주년 기념 음악회 '푸른 지구와 평화로운 삶에 기뻐하기'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지오르지아 푸만티(Giorgia Fumanti)가 불러 소개되었다.

신을 찬미할지라!

하늘과 땅에 감사합니다

무형, 유형의 존재들께 감사합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은총 주셨으니.

이 축복 영원히 이어져

세계 평화와 행복에 기여하게 하소서.

각계의 친구들, 용감한 제작진에게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헌신이

무수한 존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었기에.

이생에서, 또 다음 생까지도!

무한한 기쁨 함께 나누고

이 긍정적인 방송을 성원해 주신 모두에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축하를 보냅니다.

수많은 멋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한결같은 마음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합니다.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도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내 모든 사랑을 바칩니다—즐겁게 시청하세요!



## 신은 그대를 너무나 사랑하시네!

영어 원시 God Loves You So!

이 자장가는 칭하이 무상사가 당신의 반려동물과 제자들에게 즉흥적으로 불러 주시고 현장에서 녹음된 노래로, 모든 존재에게 언제나 신을 기억할 것을 일깨운다. CD M037 '잘 자라, 아가야'에서 그녀의 고운 음성으로 이 아름다운 곡을 감상할 수 있다.

잘 자요, 아름다운 이여, 잘 자요, 눈부신 이여.

그대는 신성해요, 꼭 기억해요!

달콤한 꿈 꾸어요, 멋진 친구들

나의 아름다운 이여, 천국의 사랑이여.

신은 그대를 너무나 사랑하시네, 난 더욱더 사랑하네.

그대는 신성한 이, 그대는 신의 사랑.

잘 자요, 사랑하는 친구들, 천국의 사랑

찬란한 생명이여, 나의 경이로움이여!

너무나 사랑받는 그대, 너무나 소중한 그대

천국이 지켜 주고 신이 사랑하시네.

나도 사랑해요, 그대도 알지요.

영원토록 그대는 나의 사랑

나의 연인, 그대는 신성해요.

절대 잊지 말아요, 그대 신의 아이임을!

그대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  
그대는 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

꼭 기억해요, 그대는 신성해요

그대는 영광, 그대는 천국!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어떤 식으로든

어디서건, 언제나 함께해요.

우리는 세세생생 가장 친한 친구

절대 헤어지지 않아요, 우린 하나니까

나 그대 사랑하고 그대 날 사랑하니까

신이 그대를 사랑하시니까, 영원토록.

우리는 천국에서 왔어요, 부디 잊지 말아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본래 속한 곳, 슬픔이 없는 곳

슬픔은 없고 아름다움만 있는 곳

사랑과 평화, 지복과 영광만 있는 그곳으로.

더 이상, 더 이상 눈물은 없어요!

더 이상 슬픔은 절대, 절대 없어요

그대는 신의 사랑이니까, 내 사랑이니까!

잊을 수도 있겠지만, 기억할 거예요

그대는 신성하니까, 그대는 경이로우니까!



그대는 최고의 존재, 누구보다 훌륭해요.  
그대는 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  
나도 너무나 사랑해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대 향한 내 사랑 결코 변치 않아요!

달콤한 꿈 꾸어요, 멋진 별천지를 보아요.  
천국으로 가요, 고향을 찾아가요.  
그곳이 우리가 있을 곳, 우리가 본래 속한 곳.  
이 끔찍하고 무서운 세계는 아니에요.

모든 걸 두고 우리 떠날 거예요.  
오직 그대와 나, 천국에서 사랑으로 살아요!  
더 이상 근심은 없어요, 헤어짐도 없어요  
더 이상 슬픔은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이곳의 모든 것은 그저 오고 가는 것일 뿐  
그대 멋진 가슴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사랑, 기억해 봐요, 오래전 그날을  
근심 걱정 없고, 천국에서 머물던 때를.  
내 사랑, 기억해 봐요, 그대는  
행복 가득한 존재, 경이로움 가득한 존재.  
내 사랑, 기억해 봐요, 그대는  
영광 가득한 존재, 아름다움 가득한 존재!

그대는 그런 존재, 난 알고 있어요.  
꼭 기억하고 행복해져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대는 안전해요, 언제나 언제까지나.  
내 사랑, 그대는 인간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몸이 아니니까.  
그대가 잊었을 뿐이에요.  
꼭 기억해요!  
그럼 괜찮아질 거예요  
그럼 행복해질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요, 그대는 신성해요!

그대는 신의 사랑, 그대는 나의 사랑  
꼭 기억해요, 그대는 신의 사랑이에요!  
그대는 아름다워요, 그대는 놀라워요.  
나만 아는 것이라면 그대도 알았으면!

잊지 말아요, 그대는 최고의 존재  
진짜예요, 이 말을 믿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건 예고일 뿐  
그대의 진아가 아니에요, 그대는 경이로워요!  
그대는 너무나 순수해요, 그대는 너무나 순수해요  
그대는 너무나 선량해요, 그대는 사랑이 넘쳐요!



그대의 참모습을 알았으면 해요.  
그럼 행복할 거예요,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아니까, 그대를 잘 아니까.  
내가 아는 것, 그대도 알았으면.

그럼 온갖 장애에서 자유로울 거예요  
그럼 온갖 슬픔에서 벗어날 거예요.  
나 그대를 너무나 사랑해요, 나만 알지요.  
그대도 알았으면, 내가 알듯이!

그대 언젠가..... 알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대가 사랑임을, 그대가 순수함을  
그대가 신성함을, 그대가 신의 아이,  
모든 천국이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그대도 알았으면,  
신이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대도 알았으면!

그대 외롭다 느낀다면  
그렇지 않아요, 내 소중한 사랑이여!  
신은 늘 그곳에서, 그대를 돌보고 계시네.  
그대를 지켜보시네, 온 사랑을 다해서!

그저 그대가 알았으면, 내가 아는 대로.  
신은 그대를 너무나 사랑하시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내가 아는 것처럼 그대도 알았으면,  
그럼 모든 슬픔에서 벗어날 거예요!

언젠가는 그대, 언젠가는 알 거예요.  
누구도, 그 누구도 그대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 누구도 그대에게 상처 줄 수 없어요!  
그날이 올 거예요, 모든 걸 알게 되는.  
그대 마음속 평화, 영원할 거예요!  
그대의 참모습 기억해 낼 거예요.  
그럼 자유로워져요, 언제나 언제까지나!  
내가 아는 대로 그대도 알았으면,  
그날이 올 거예요, 신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달콤한 꿈 꾸어요, 신을 기억해요.  
달콤한 꿈 꾸어요, 신을 기억해요!  
그대는 신성한 이, 그대는 신의 사랑.  
꼭 기억해요, 그대는 나의 사랑임을.....(!)



## 잘 자라, 아가야

영어 원시 Good Nite Baby

이 자장가는 칭하이 무상사가 당시의 반려동물과 제자들에게 즉흥적으로 불러 주신 것을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적으신 노래로, 모든 존재에게 언제나 신을 기억할 것을 일깨운다. CD M037 '잘 자라, 아가야'에서 그녀의 고유 음성으로 이 아름다운 곡을 감상할 수 있다.

잘 자라, 아가야  
멋진 꿈을 꾸렴,  
천국은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신을 기억하렴,  
그분은 널 진짜로 사랑하신단다.  
너는 신성한 존재  
너는 그분의 아이.

잘 자라, 어여쁜 아가  
그분을 기억하렴,  
빛을 기억하렴, 사랑을 기억하렴.

우리 함께 삶을 아름답게 만들자.  
우리 함께 서로를 사랑하자.

자장자장, 사랑스런 아가, 곧 만나게 될 거야  
슬픔과 고통 없는 세상에서,  
천국은 여기 너와 내 안에,  
우주 만물 안에 있단다.

잘 자라, 무지개야, 신의 사랑 속에 잠들렴,  
천사의 품에서, 부드러운 구름 속에서  
수천의 노랫소리 속에서  
이 세상 너머 축복의 빛 속에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 날이 갈수록 커지고  
천사들이 보호하고 신이 축복하시네,  
너는 신성한 존재, 너는 신의 아이,  
너는 신성한 존재, 너는 신의 사랑-

자장자장, 아가들아  
너희는 신성하단다.  
신의 사랑 속에 잠들렴,  
천국을 꿈꾸렴.

자장자장, 어여쁜 아가  
멋진 친구들아  
내 사랑 속에 잠들렴,  
천국을 꿈꾸렴.

우리는 신성한 존재  
꼭 기억하렴,  
우리는 성스럽고  
우리는 신의 사랑이란다!

자장자장, 아가들아, 아름다운 아들이  
신께서 창조하신 경이로운 존재들이,  
사랑해 주고 함께해 줘서 고맙구나,  
그 마음을 충심이 고맙구나,  
너희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진실하단다  
너희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진실하단다.

신을 기억하렴, 참나를 기억하렴,  
천국이 널 사랑하고 나도 널 사랑해,  
자장자장, 어여쁜 아가들아, 멋진 친구들아  
꿈에서 만나자, 눈부신 별천지에서,  
너와 남 위해 예남이 떠오를 때니  
달콤한 꿈 꾸렴,  
달콤한 밤 보내렴!

칭하이 무상사  
2008년 7월 18일  
프랑스 성 대인 센터



자장자장, 아가  
나와 함께라면 안전하단다.  
비도 들이치지 않고  
천둥도 멀리 달아나지.

천국이 널 축복하고  
천사가 널 지켜 주니  
너는 무사하고  
언제나 안전할 거야.

내가 여기 있어  
밤을 달래고 있으니  
두려운 번갯불도 없고  
무서운 총소리도 없단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의 착한 아들들이겐  
나의 착한 딸들이겐  
너희는 신의 사랑이니.

구름 저 너머에서  
하늘 저 너머에서  
별님과 춤추고  
천사와 노래하렴.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천국이 너를 보호하고  
신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천사들이 너를 참미하고  
요정들이 너를 품어안단다.  
너는 주변에  
미소를 선사하고  
너의 노래는  
나의 허무를 기쁘게 해주지.

자장자장 자장자장  
나의 보배들아  
달콤한 꿈 꾸렴.  
무지개 꿈을 꾸렴.

고마워라, 나의 아가  
너의 큰 사랑과  
한결같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에.

사랑스런 아가  
사랑해 줘서  
이해해 줘서  
용서해 줘서 고맙구나.

고마워라, 나의 사랑  
지금 그 모습에,  
영원한 사랑  
영원한 헌신에.

너는 인간세계로  
신이 보내신 존재.  
천국의 사랑을  
비워 주는 존재.

내 얼굴 밝혀 주는  
그 미소가 고마워라.  
네 마음속의  
불멸의 사랑 고마워라.

너는 친구를 지키는  
천사  
두려움 없는 영웅  
의로운 존재.

너의 친구라서  
자랑스럽단다.  
너의 사랑 받아  
내 가슴은 기쁘구나.

잘 자라, 아가야.  
천국이 너를 지키고  
신이 너를 보호하시고  
나도 너를 사랑하단다.

고맙구나, 너의 사랑  
너의 한결같은 마음  
너의 따스한 존재감  
너의 귀한 마음.

너는 나의 보배  
너는 나의 보석  
너는 나의 위안  
너는 특별한 미인.

너는 내게 기쁨 주고  
너는 내게 사랑 주고  
너는 내게 힘을 주고  
너는 내게 희망을 주네.



오래도록 머물러 주렴  
사랑스런 벗들아.  
해님처럼 눈부시고  
달님처럼 달콤하게.

자장자장, 아가  
나의 어여쁜 아가.  
멋진 친구들아  
천국의 사랑아  
달콤한 꿈 꾸렴.  
나의 가장 소중한 이  
너는 신성한 존재  
너는 신의 사랑이란다.

자장자장, 아가  
너는 신성한 존재.  
너는 신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  
천국이 널 사랑하고  
신이 널 축복하시네.

잘 자라, 잘 자라  
내 어여쁜 아가.  
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는 내 마음속에 있고  
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린 다시 만날 거야.  
너를 향한 마음 한결같고  
우리 사랑 진실하란다.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새롭구나!



참애이 무상사  
2009년 10월 18일  
프랑스 로크브렌느





## 언제 다시 만나려나?

어울럭어 원시 Bao Giò Gặp Lại?

오, 님이여, 우리 언제 다시 만나려나  
영원한 우리 사랑, 이끼 낀 옛 부두가 됐는데.  
아득한 생애, 우리 서로 약속했고  
달님이 증인이었건만, 옛길은 황량해지고 말았네.



오, 먼 곳에 계시는 님이여,  
그대 아직도 은하수에서 다시 만날 날 그리는가?  
열렬한 마음, 해와 달에 애원하건만  
영혼은 홍진(紅塵) 세상을 떠돌고 있구나.

그 영혼의 절반은 나의 일부, 영원하여라  
광활한 천공의 가장 높은 별처럼  
푸른 파도 넘실거리는 영원한 바다처럼  
정수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찬란한 지구처럼.

오, 님이여, 나 아직 함께할 날 갈망하니  
우리 열정의 파도, 사방으로 퍼져 가노라.  
운명에도 아랑곳없이 가슴은 희망을 키워 내고  
입술에선 복음의 노래 끝없이 피어난다.

밤이 당도해도, 새벽은 언제나 앞서 나가니  
깊은 잠 자고 나면, 해매던 꿈에서 깨어나  
빛으로 충만한 지복의 나라로, 우리 돌아가리라.  
천국의 바람결에 대양의 음성 어디서나 메아리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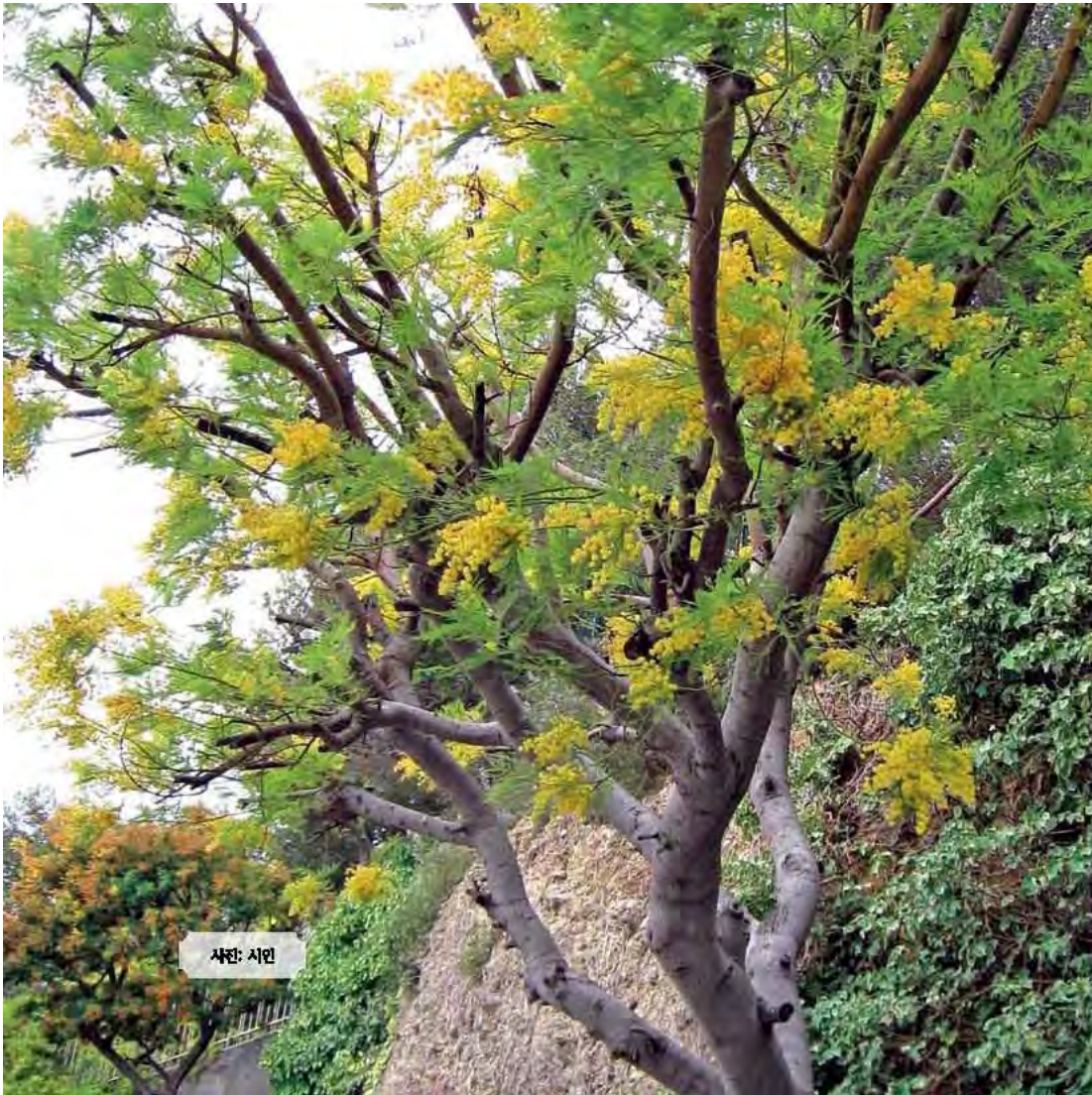


사진: 시인

## 공연된 시 목록

'천년의 사랑'에 수록된 시 중 몇 편은 높이 평가받는 작곡가들에 의해 편곡돼 '예술과 명성: 음악과 시' 프로그램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개국 기념 음악회를 통해 방송되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면 참하이 무상사의 저명한 예술가들이 공연한 시와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 Hây Bông Thiá (해어나세요): [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29&page=1#v](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29&page=1#v)
- Hây Dông Lái (하지 마세요): [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29&page=1#v](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29&page=1#v)
- Vô Tân Hố (후 호미개): [http://www.suprememaster.tv/mp/?wr\\_id=51&page=6#v](http://www.suprememaster.tv/mp/?wr_id=51&page=6#v)
- Nhà Tôi (나의 집): [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38&page=1#v](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38&page=1#v)
- Gỏi Lê Uyên Phương (레 우연 프랑을 위해): [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06&page=3#v](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06&page=3#v)
- Không Phải Em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 [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41&page=1#v](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41&page=1#v)
- Gỏi Thái Hằng (타이 항을 위해): [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38&page=3#v](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38&page=3#v)
- Cho Phạm Duy (팜 주에게): [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13&page=3#v](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13&page=3#v)
- Mãi Đêm (한밤의 꿈): [http://www.suprememaster.tv/mp/?wr\\_id=72&page=5#v](http://www.suprememaster.tv/mp/?wr_id=72&page=5#v)
- Khúc Nào Thời Gian (시간의 그늘): [http://www.suprememaster.tv/mp/?wr\\_id=59&page=6#v](http://www.suprememaster.tv/mp/?wr_id=59&page=6#v)
- Lối Lạ Con (아기 돼지의 밭): [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31&page=1#v](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31&page=1#v)
- Lối Gà Mái (엄마의 밭): <http://www.suprememaster.tv/mp/?page=7>
- Lối Chá Vên (강아지의 마름): [http://www.suprememaster.tv/mp/?wr\\_id=45&page=6#v](http://www.suprememaster.tv/mp/?wr_id=45&page=6#v)
- Sayonara (사요나라): [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20&page=2#v](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20&page=2#v)
- Bón Seo Vãng (황금 연꽃): [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20&page=2#v](http://www.suprememaster.tv/mp/?wr_id=120&page=2#v)
- Praised Be the Providence (산을 찬미합니다): <http://www.suprememaster.tv.com/3year>
- Mãi Đêm(한밤의 꿈), Thinking Nham Em(서로 사랑해요), When You Said You Love Me(당신이 사랑했다 알했을 때): <http://www.suprememaster.tv.com/4year>

이 시집에 담긴 몇 편의 시는 '고대의 사랑', '한밤의 꿈', '시간의 그늘', '황금 연꽃', '질 지라, 아기가' 등 최근 출판된 CD와 DVD를 통해 방송, 공연되었다. '주요 연락처' 페이지를 방문하면 이들 CD와 DVD를 구매해 참하이 무상사의 달콤하고 표현력이 뛰어난 목소리를 통한 심금을 울리는 방송을 감상할 수 있다.

- CD-M036, DVD 801-고대의 사랑: '어상적인 연인', '후 호미개', '나의 집', '고대의 사랑', '레 우연 프랑을 위해', '서로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 '불쌍(同情)하게 하는 밭', '하루는', '타이 항을 위해', '팜 주에게', '그리운 여동'
- CD-M030, DVD 764-한밤의 꿈: '한밤의 꿈'
- CD-M031, DVD 765-시간의 그늘(시공을 초월하여): '시간의 그늘'
- CD-M035, DVD 770-황금 연꽃: '사요나라', '황금 연꽃'
- CD-M037-질 지라, 아기가: '질 지라, 아기가', '신은 그대를 너무나 사랑하시네'



# 칭하이 무상사의 간행물

## 칭하이 무상사의 시 작품집



• **지난날과 지금**  
(어울락어 시 낭송): MP3.



• **향기로운 손길**  
(유명 가수들이 어울락어로 부른 노래 공연): MP3.



•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어울락어 시 낭송): MP3.



•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어울락어 노래 공연): MP3.



• **잘 자라, 아가야**  
(영어 노래 공연): MP3.



• **시간의 그늘(사공을 초월하여)**  
(어울락어 노래 공연): MP3, DVD, MP4.



• **고대의 사랑**  
(어울락어 노래 공연): MP3, DVD, MP4.



• **한밤의 꿈**  
(어울락어 노래 공연): MP3, DVD, MP4.



• **황금 연꽃**  
(어울락어 시 낭송): MP3, DVD, MP4.  
칭하이 무상사의 고운 음성으로 낭송한 탁월한 작 선사의 아름다운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스승님은 '황금 연꽃'과 '시요 나라' 등 두 편의 자력시도 낭송하셨다.



•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MP3 1, 2, 3.



• **전생의 발자취**  
(어울락어 시 낭송): MP3 1, 2, 3.



• **보석 시집**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MP3, DVD, MP4.



• **칭하이 무상사 창작 가곡 모음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노래 공연): MP3, DVD, MP4.



• **사랑의 노래**  
(어울락어, 영어 노래 공연): MP4.

•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고대의 사랑', '시간의 그늘', '한밤의 꿈',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지난날과 지금', '전생의 발자취', '보석 시집', '잘 자라, 아가야', '황금 연꽃',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는 시인이 직접 낭송하거나 곡을 붙여 노래한 것이다.





• 조약돌과 황금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전생의 발자취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나비의 꿈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잃어버린 기억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그 옛날  
어울락어, 영어.



• 무자시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침묵의 눈물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 천년의 사랑  
한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 칭하이 무상사의 영적 가르침

### 책

- **즉각 깨닫는 열쇠**  
한국어(1-11), 독일어(1-2), 몽골어(1, 6), 스웨덴어(1), 스페인어(1-3), 어울락어(1-15), 영어(1-5), 인도네시아어(1-5), 일본어(1-4), 중국어(1-10), 태국어(1-6), 티베트어(1), 포르투갈어(1-2), 폴란드어(1-2), 프랑스어(1-2), 핀란드어(1), 헝가리어(1).
- **즉각 깨닫는 열쇠-문답록**  
한국어(1-4), 독일어(1), 러시아어(1), 불가리아어(1), 어울락어(1-4), 영어(1-2), 인도네시아어(1-3), 일본어(1), 중국어(1-3), 체코어(1), 포르투갈어(1), 폴란드어(1), 프랑스어(1), 헝가리어(1).
- **즉각 깨닫는 열쇠 특별판/ 선집**  
어울락어, 영어.
- **즉각 깨닫는 열쇠 특별판/ 1993년 세계 순회강연**  
영어(1-6), 중국어(1-6).
- **세계시간의 편지**  
스페인어(1), 어울락어(1-2), 영어(1), 중국어(1-3).
- **즉각 깨닫는 열쇠-신기한 감응(1-2)**  
어울락어, 중국어.
-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한국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 **신과 인류의 이야기-성경 이야기를 통한 고찰**  
영어, 어울락어, 중국어.
- **산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칭하이 무상사의 지혜 만화집**  
한국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 **후광이 너무 꼭 끼요!-칭하이 무상사의 깨달음이 담긴 유머집**  
영어/중국어.
- **살을 다채롭게**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쉽게 수행하는 비결**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평화의 길**  
영어, 중국어.
-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어, 그리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체코어, 터키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헝가리어.
- **황금시대의 생활 시리즈**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감로법어(1)**  
한국어,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포르투갈어, 영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 **감로법어(2)**  
영어, 중국어.
- **무상 주방-전세계 채식 요리**  
아울락어, 영어/중국어, 일본어.
- **무상 주방-가정식**  
영어/중국어.
-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아울락어/영어/중국어.
- **칭하이 무상사 예술 창작집-회화 시리즈**  
영어, 중국어.
- **S.M. 천의집(6)**  
영어/중국어.
-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1, 2)**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한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아랍어, 아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 **고귀한 야생**  
한국어, 독일어, 몽골어, 아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 **천상의 예술**  
아울락어, 영어, 중국어.
- **위기에서 평화로-유기농 비건 채식이 해답이다**  
한국어,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아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태국어, 텔루구어, 헝가리어.
- **살과 의식에 관한 사색**  
중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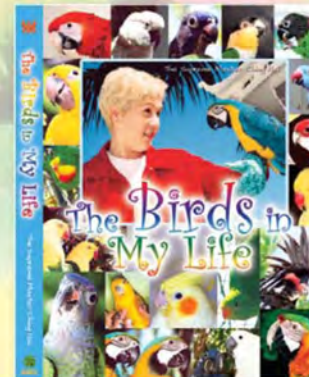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음악-콘서트가 담긴 MP3, DVD, MP4는 다음 언어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광둥어, 그리스어, 네덜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즈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아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줄루어, 중국어 간체-번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등. 카탈로그를 요청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언제나 바로 문의 주세요.  
 우리 서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강행록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http://www.theCelestialShop.com>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또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전화: (886) 2-23759688  
 팩스: (886) 2-23757689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mailto: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 **고귀한 야생**  
희망에 찬 황금시대 5년(2008년)의 도래를 맞아 칭하이 무상사는 「고귀한 야생」을 새해 선물로 세계에 선사하였다. 이는 스승님이 직접 구성하고 사진을 찍은 호숫가 생태 탐험 일지로서, 시적 표현과, 장엄한 대자연과 야생동물의 숨이 멎을 듯한 멋진 사진들이 절묘하게 엮인 매우 뛰어난 예술 걸작품이다!  
 아마존닷컴 온라인 구매:  
<http://www.amazon.com/Noble-Wilds-Supreme-Master-Ching/dp/9868415233/> (페이퍼백)  
<http://www.amazon.com/Noble-Wilds-Supreme-Master-Ching/dp/9868415225/> (양장본)



• **고귀한 야생**  
DVD 800(영어+21개 언어 자막)



-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아름다운 일러스트로 구성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통해 칭하이 무상사는 우리를 동물들의 내면세계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그들 또한 우리에게 주저 없이 마음을 열 것이다. 침으로 만든 이 책의 각 페이지에는 사랑과 조화롭음이 흐르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는 우리로 하여금 동물이 매우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정말 놀라운 책이 아닐 수 없다! 동물은 인간의 좋은 친구이다. 모두 이 경이로운 책을 읽어 보시길 바란다.  
 아마존닷컴 온라인 구매:  
<http://www.amazon.com/dp/9866895149/>  
 김으로 배달된 책에서 각 페이지마다 흐르는 사랑을 경험해 보시길.



•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1-2)

"독자들이, 개들이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보고, 또한 그들을 통해 다른 존재들에 대해 좀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하이 무상사

아마존닷컴 온라인 구매:

The Dogs in My Life (1): <http://www.amazon.com/dp/9866895076/>

The Dogs in My Life (2): <http://www.amazon.com/dp/9866895084/>

(중국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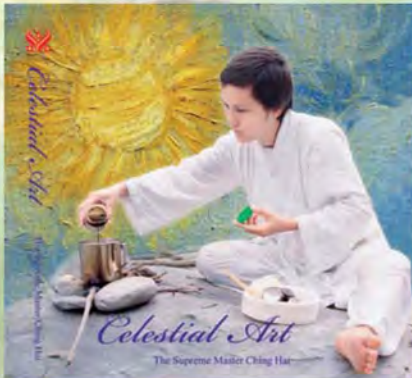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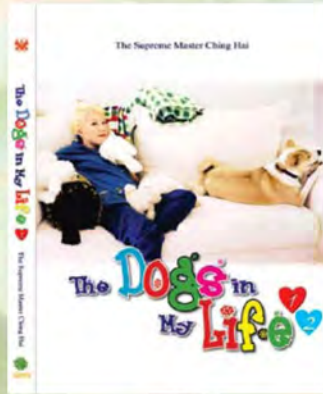
금석당: <http://www.kingstone.com.tw>

성품: <http://www.eslitebooks.com/>

박문래: <http://www.books.com.tw>

• 내 인생의 개들과 새들

DVD 780(영어+28개 언어 자막)



• 천상의 예술

이 걸작품을 통해 저자는, 영적 시공간에서 볼 때 예술 창작품은 천국의 진신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칭하이 무상사의 무한한 예술 세계로 초대되어 신성과 공명하는 경험을 통해 고양된 독자들은 시인의 깊은 감정, 화가의 섬세한 붓질, 디자이너의 독특한 발상, 그리고 음악가의 낭만적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영적 스승의 지혜와 자비함에 대해 알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아마존닷컴 온라인 구매:

<http://www.amazon.com/Celestial-Art-Supreme-Master-Ching/dp/9866895378>

『즉각 깨닫는 열쇠』 무료 견본책자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는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전세계 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보석은 아프리카언어부터 줄루어까지, 벨갈어부터 우르두어, 마케도니아어, 말레이어, 그 외 많은 언어까지 80개 이상 언어로 번역돼 있습니다.

견본책자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일상생활에서의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높은 영적 차원의 신비를 밝힐 뿐 아니라 비건 채식의 이로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밖에 궁극적인 최고의 법문인 관음법문에 입문해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에 담긴 칭하이 무상사의 통찰력은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킬뿐더러 진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밝은 희망의 빛줄기를 제시합니다.

칭하이 무상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내면의 천국을 찾고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조화, 내면의 전능한 힘을 깨달았을 때야 세속적인 바람과 천국에 대한 갈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신의 왕국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나 힘, 높은 지위를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개인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가진 독자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 다국어 웹사이트 <http://sb.godsdirectcontact.net>를 링크하시기도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신의 메시지를 나누고 인류의 의식을 고양 시킴으로써 세상에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견본책자 목록에 여러분의 모국어가 없어서 원하는 언어로 견본책자를 번역하려는 분은 [divine@godsdirectcontact.org](mailto:divine@godsdirectcontact.org)로 연락해 주십시오.

무료 견본책자 다운로드 사이트 (80개 언어)

<http://sb.godsdirectcontact.net>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 노랑: 활인중
- 빨강: 활인중
- 검정: 흑인중
- 흰색: 백인중
- 녹색: 자연, 동물, 새 등등
- 파랑: 물과 수생 생물
- 황금: 지구
- 백경: 하늘



우리의 잠재된 신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발의 SM 로고는 우리에게 내인의 빛나는 풍성을 깨달시켜야 할을 상징시켜 준다. 것발 양쪽에 서로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하트 문양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모든 차별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면서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롭고 즐겁게 살아가길 바라는 신의 기대를 상징한다.

스승님께서 손수 아담담고 의미 깊은 우리 단체 것발을 디자인해 주시고, 각 색깔의 하트 문양이 나타내는 의미도 설명해 주셨다.

## 주요 연락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P.O.Box 9, Hsihtu, Miaoli Hsien, Formosa (36899),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peace@SupremeMasterTV.com](mailto:peace@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

###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mailto: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2375-9688  
팩스: 886-2-2375-7689  
<http://www.smchbooks.com>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mailto:divine@Godsdirectcontact.org)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anews@Godsdirectcontact.org](mailto:lovanews@Godsdirectcontact.org)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mailto:lovewish@Godsdirectcontact.org)

온라인 상점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S.M. 셀레스티얼 주식회사  
이메일: [smclothes123@gmail.com](mailto:smclothes123@gmail.com), [vegan599@hotmail.com](mailto:vegan599@hotmail.com)  
전화: 886-3-4601391  
팩스: 886-3-4602857  
<http://www.sm-tj.com>

러빙훅 인터내셔널  
이메일: [info@lovinghut.com](mailto:info@lovinghut.com)  
전화: 886-2-2239-4556  
팩스: 886-3-2299-5210  
<http://www.lovinghut.com/tw>  
<http://www.lovinghutfood.com/tw>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mailto:chinghaikpt@yahoo.co.kr)  
전화: 054-585-9251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mailto:chinghaiyd@naver.com)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 · SM 보석 · 천의 · 관체등 ·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권을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 여러분의 음식을 바꾸세요 ♥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 ♥ 건강해지고 사랑을 배우세요

# 대안적인 삶 Alternative Living

영양이 풍부하고 생명을 구하는 음식의 예:

| 음식                       | 단백질 함량(중량 백분율) |
|--------------------------|----------------|
| 두부 (원료: 콩)               | 16 %           |
| 글루텐 (원료: 밀가루)            | 70 %           |
| 옥수수                      | 13 %           |
| 쌀                        | 8.6 %          |
| 대두, 강낭콩, 병아리콩, 렌즈콩 등     | 10 - 35 %      |
|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헤이즐넛, 잣 등 | 14 - 30 %      |
| 호박씨, 참깨, 해바라기씨 등         | 18 - 24 %      |

• 조류독감으로 인한 전세계적 유행병의 심각한 위험을 줄이려면,  
• 광우병 및 돼지 질병(PMWS 중후군)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족들, 해양 생물, 조류 친구들이 매일 수십억씩 계속해서 끔찍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으려면,  
영생 채식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채식은 건강입니다. 채식은 자비입니다.  
채식은 경제입니다. 채식은 평화입니다.  
채식은 생애입니다. 채식은 종교입니다.

우린 생명을 구해 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대안적인 삶 홈페이지([www.GodsDirectContact.or.kr/al](http://www.GodsDirectContact.or.kr/al))  
E-Mail: [AL@GodsDirectContact.or.kr](mailto:AL@GodsDirectContact.or.kr)  
생명사랑 채식실천협회([www.bevege.or.kr](http://www.bevege.or.kr))  
한국 채식연합([www.vege.or.kr](http://www.vege.or.kr))

**수프라임 마스터 텔레비전**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건설적인 방송

14개의 위성고 온라인 [www.SupremeMasterTV.com/kr](http://www.SupremeMasterTV.com/kr)에서 시청하세요.  
Hotbird 6, Galaxy 19, Hispasat 1C, Intelsat 805, ABS, Astra 1, AsiaSat 5, AsiaSat 3S  
Intelsat 10 C-Band, Intelsat 10 KU-Band, Optus D2, Eurobird 1, Eurobird 2, Sky TV

농축 종합 비타민 정제/캡슐 또한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 성분들 두루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과일과 야채는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 성분이 풍부하며, 고품질의 섬유질이 들어 있어 건강 유지와 장수에 좋습니다.  
일일 단백질 권장량 : 50그램 (일반 성인 기준)  
식물성 칼슘은 우유의 칼슘보다 흡수력이 더 좋습니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채식주의:

**철학자, 영적 지도자:**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인도 영적 교사), 소크라테스(그리스 철학자), 예수 그리스도, 공자, 석가모니불, 노자,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이탈리아 가톨릭 성자), 틱낫한(베트남 불교 승려, 작가), 오키 마하리쉬 마헤쉬(인도 초월명상 지도자), 레오 톨스토이(러시아 철학자), 피타고라스(그리스 수학자, 철학자), 짜리투스트라(이란 조로아스터교 창시자), 무하마드 라힘 바와 무하야딘(스리랑카 이슬람 작가, 수피 성인) 등  
**작가,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이탈리아 화가), 랄프 월도 에머슨(미국 수필가, 시인), 조지 버나드 쇼(아일랜드 작가), 존 로빈슨(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미국 작가), 알버트 슈바이처(독일 철학자, 의사, 음악가), 볼테르(프랑스 작가), 사데크 헤다아트(이란 작가) 등  
**과학자, 발명가, 엔지니어:** 찰스 다윈(영국 자연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독일 과학자), 토머스 에디슨(미국 과학자, 발명가), 아이작 뉴턴(영국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세르비아계 미국 과학자, 발명가), 헨리 포드(미국 포드 자동차 창립자) 등  
**정치가, 사회 운동가:** 수잔 B. 안토니(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인도 인권 지도자), 코레타 스콧 킹(미국 인권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부인), 아네즈 드르노프세크 박사(슬로베니아 제2대 대통령), 만모한 싱(인도 총리), 데니스 J. 쿠키너치(미국 하원의원) 등  
**배우, 모델:** 파멜라 앤더슨(미국 여배우), 에슬리 줌드(미국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프랑스 여배우), 존 클리즈(영국 배우), 데이비드 듀코브니(미국 배우), 대니 드비토(미국 배우), 대릴 한나(미국 여배우), 더스틴 호프만(미국 배우), 스티브 마틴(미국 배우), 이안 맥퀼런(영국 배우), 토비 맥과이어(미국 배우), 호아킨 피닉스(미국 배우), 스티븐 시걸(미국 배우), 제리 세인펠드(미국 배우), 나오미 왓츠(호주 여배우), 케이트 윈슬렛(영국 여배우), 크리스틴 브링클리(미국 슈퍼모델), 크리스티 탈링턴(미국 슈퍼모델) 등  
**음악가:** 조지 해리슨 · 폴 매카트니 · 링고 스타(비틀즈 멤버), 밥 딜런(미국 음악가), 모리세이(영국 가수), 올리비아 뉴튼 존(영국계 호주 가수), 시너드 오코너(아일랜드 가수), 핑크(미국 가수), 프린스(미국 팝스타), 티나 터너(미국 팝스타), 사이나 트웨인(캐나다 가수), 비네사 윌리엄스(미국 팝가수) 등  
**유명 스포츠인:** 빌리 진 킹(미국 테니스 챔피언), 칼 루이스(미국 올림픽 육상 9관왕), 에드윈 C. 모제스(미국 올림픽 육상 2관왕), 알렉산더 다르가츠(독일 운동선수, 보디빌딩 챔피언, 의사) 등

[www.GodsDirectContact.or.kr/vg-vip](http://www.GodsDirectContact.or.kr/vg-vip)에서 더 많은 채식 유명인사의 명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긴급 정보를 보시려면: [www.SupremeMasterTV.com/kr/Be-Veg](http://www.SupremeMasterTV.com/kr/Be-Veg)



7년년의 사랑

펴낸곳: SM출판사

주소: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음3길 205번지

전화: (054) 535-9251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mailto:chinghaikpt@yahoo.co.kr)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출판 신고: 제511-511000251002006000002호 2006년 3월 7일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출판사의 사전 허락을 얻으면 이 출판물의 내용을 복제해도 좋습니다.



A woman with long blonde hair, wearing a white dress and a blue shawl, stands in a lush, green forest. She is looking towards the camera with a slight smile.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trees and foliage, creating a serene and natural setting.

**작곡가 전 광 록(Trần Quang Lộc):**

칭하이 무상사의 시는 그 자체가 부드러운 세계이며, 감정을 일깨우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이 덧없는 세상에서 그녀의 시는 사람의 영혼을 천상계로 인도하는 삼매의 햇불과 같으며, 시원하고 명상적인 관조로 충만해 있다. 그녀의 시어는 5음계 음악권 삶의 음과 양을 반추하며, 꿈과 현실, 유형(有形)과 무형(無形), 고통과 기쁨 간에 수시로 번덕을 부리는 반짝이는 이슬방울을 담은 선율을 자아낸다.

칭하이 무상사의 『천년의 사랑』에 수록된 46편의 시는 개인의 내적인 영적 삶에서는 물론 꽃과 땅, 하늘 사이에서도 찬란하게 빛난다. 칭하이 무상사의 광대한 시 세계 속에서 독자는 ‘자연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간에 존재하는 따사로운 연결과 공통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온 우주를 떠돌아 다녔네  
내 사랑, 당신과 다시 만나길 갈망하며,  
수천 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기다리건만  
나의 현신이 결코 시들지 않듯 시간도 끝없이 계속되는구나!

~천년의 사랑  
칭하이 무상사